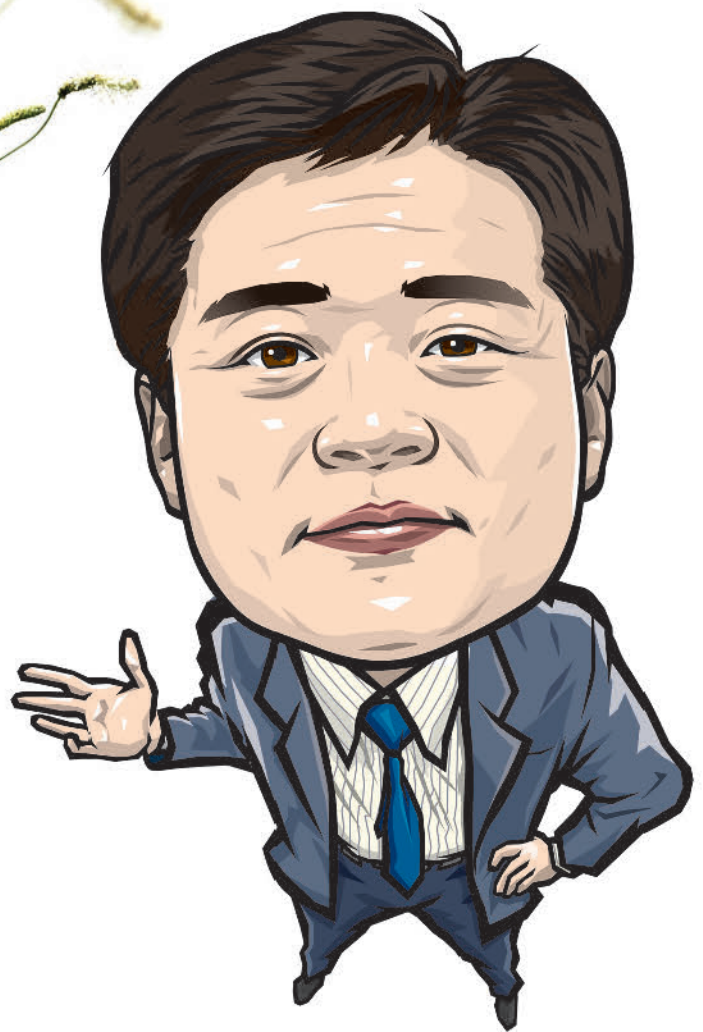


ECONet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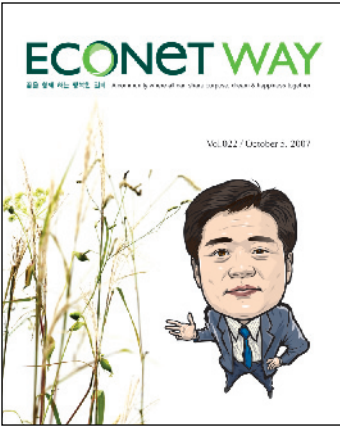
Vol.022 / October 5, 2007



이 달의 자랑스러운 에코네시안으로 선정된 유니베라 한국의 이규남 팀장 입니다.

Presenting October's "Exemplary ECONETian": Team Manager Gyunam Lee of Univera Korea

c o n t e n t s



Cover Page
사진 김종민 작가 캐리커처 장영석
유니젠 러시아 농장 주변에서 자생하는 야생화 사진과 이 달의 자랑스러운 에코네시안으로 선정된 이규남 팀장의 모습을 캐리커처로 담았다.
Photo by Jongmin Kim
Caricature by Yeongseok Jang
The cover features a photograph of indigenous wildflowers growing around Unigen's Russia farm and a caricature of October's "Exemplary ECONETian," Team Manager Gyunam Lee.



ECONET Special

- 02 '땅 위에 별을 심은 사람' • 필생의 승부수
- 08 스페셜 리포트 • 새로운 지식이 자라나는 농장을 만들자
- 12 웰니스 칼럼 • 영혼의 수양과 긍정적 사고로 시작되는 ECONET의 웰니스!
- 18 포커스 • 2007 유니베라 연례회의 - 새로운 각오

ECONETIAN

- 22 자랑스러운 에코네시안 • 작은 고추가 땀다
- 26 고고우리부서 • 인재가 미래다 - HR팀 소개
- 32 에코넷으로의 초대 • 네이처텍의 숨은 저력! 칭찬&베스트 사원!
- 36 우체통 1 • 내 생애 잊지 못할 사랑의 인턴십
- 42 우체통 2 • 생명의 릴레이 경주



Culture & Life

- 46 신제품 소개 • 리니시에 에이지 디파잉
- 50 추천도서 • 성공한 기업들의 비밀
- 54 특별 건강식 • 와인이 어렵다면, 포도품종을 따라가 보세요

Info

- 58 ECONET News Network • ECONET 계열사 뉴스
- 78 에코넷 사진컨테스트
- 82 퀴즈! 퀴즈!
- 83 함께 만드는 에코넷웨이



ECONET Special

- 05 Review of He Who Planted Stars on Earth • The Deciding Move of One's Life
- 10 Special Report • Let's Make a Farm That Grows New Knowledge
- 15 Wellness Column • Wellness at ECONET with Spirituality and Positive Thinking!
- 20 Focus • Univera Annual Convention 2007 - Discover Renewal

ECONETIAN

- 24 Exemplary ECONETian • Big things come in small packages
- 26 Go! Go! Our Division • Human capital leads to the bright future - HR Team
- 34 Invitation to ECONET • NatureTech's Hidden Strength! The 'Most Praiseworthy' and 'Best in Category' Employees
- 39 A Postbox 1 • An Internship Filled with Love - I'll Never Forget It As Long As I Live
- 44 A Postbox 2 • Relay for Life

Culture & Life

- 48 New Product Introduction • L'initié Age Defying
- 52 Recommended Books • The Secret of Successful Companies
- 56 Special Healthy Food • If Wine Is Difficult, Study the Types of Grapes

Info

- 58 ECONET News Network • ECONET Subsidiary News
- 78 ECONET Photo Contest
- 82 Quiz! Quiz!
- 83 Join Us in Making ECONET Way



필승의 승부수

“신은 인간에게 약초 알로에를 주셨고, 우리 인간들이 할 일은 그 신비를 과학으로 입증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세계 최대 알로에 농장

작열하는 멕시코의 태양 아래 하늘과 맞닿은 1백 20만 평의 거대한 대지가 검은 진주처럼 빛났다. 연호는 떨리는 심정으로 손 한가득 흙 한 줌을 쥐어보았다. 비옥한 검은 흙덩이가 손바닥에서 곱게 부서졌다. 이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약효가 뛰어난 알로에를 재배하고자 하는 연호의 꿈을 키울 것이다.

“아버지, 이제 더이상 냉해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곳은 적도 회귀선 바로 밑에 위치해 단 한번도 냉해를 당한 적이 없는 지역이라, 마음놓고 알로에를 많이 기를 수 있을 거예요.”

순간, 연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곳을 찾아내느라 전세계를 돌아다녔던 병훈 역시 코 끝이 찡했다.

지난번 냉해로 인해 애지중지 키웠던 알로에들이 모두 죽고, 알로에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로에를 제공하지 못해 가슴 태웠던 아픈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다시는 냉해가 없을 지역, 자연이 선물한 알로에를 최고의 조건에서 키울 축복의 땅..!

병훈이 곤잘레스를 발견한 건 하나의 축복이었다. 지난번 냉해로 인해 기후조건과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달았기에,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태초의 땅처럼 사시사철 따뜻하고 꿀 같은 물이 흐르는 땅을 찾기 위해 몇 달 밤낮을 새웠는 지 모른다. 세계지도를 벽에 걸어놓고 기상관련 책자를 뒤적이며 좋다는 땅이 나타나면 몇날며칠을 가야 하는 오지까지 샅샅이 찾아다닌 끝에 발견한 곳이 바로 이 멕시코의 곤잘레스였다.

“아버지, 저게 보물산이래요.”

병훈은 신이 나서 트랙터를 몰고 다니며 아버지 연호에게 농장부지 맞은편에 바라보이는 산에 대해 설명했다. “20세기 초에 내전으로 나라가 어수선할 때 지주들이 저 산에다가 보물을 숨겨놓았대요. 그래서 그 보물을 찾으려 다니는 사람들이 한동안 술했대요.”

병훈의 말을 들은 연호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보물산이라.. 보물산 맞네. 우리가 여기다 보물을 심을 거 아이가. 알로에 말이다. 내한테는 알로에가 보물이다. 푸하하!”

연호의 말에 병훈도 유쾌하게 따라 웃었다. 두 사람은 보물산 아래, 남들은 알지 못하는 푸른 보석, 알로에가 가득 심겨진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해졌다. 머잖아 이 땅에 알로에 농장이 조성되면, 그것은 누구도 넘보지 못할 세계 최대의 알로에 농장이 될 게 확실했다. 그것은 연호가 그토록 소망했던 세계적 전문기업의 토대가 될 것이었다.

세계 최초의 알로에 연구재단

텍사스 연안을 따라 긴 띠처럼 뻗어있는 해안선, 사우스파드레, 호텔 회의장 입구에 들어서던 연호의 눈에 ‘알로에 연구재단(ARF: Aloe Research Foundation)’ 창립총회라는 뜻말이 들어왔다. 너무도 가슴 뿌듯한 명칭이라 연호는 눈을 떼지 못했다.

작년 1월, 알로에 기준심의협회에서 연호가 알로에 연구의 거장 존 헤거스 박사를 만난 것이 오늘을 있게 한 시발점이었다. 알로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재단을 만들자는 연호의 제안에, 헤거스 박사는 반색을 했고, 그가 앞장서면서 재단 설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마침내 1989년 9월, 미국의 내로라하는 의학과 생화학계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 최초의 알로에 연구재단이 발족하게 된 것이다.

알로에 연구사업은 연호의 오랜 숙원이었다. 알로에의 어떤 성분이 어떤 효능을 내는지 정확히 밝혀 그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 천연의 알로에 약효를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한 가공공정을 개발하는 것, 이 모두는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할 때만이 가능한 일들이었다. 일찍이 아무도 시작한 적이 없었던 일을, 한국의 작은 기업주인 연호가 거금을 들여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런 것이었다.

“한국 남양알로에 대표이자,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알로에연구재단 이사장이신 이연호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헤거스 박사의 소개로 연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 앞으로 나갔다.
“신은 인간에게 약초 알로에를 주었고, 우리 인간들이 할 일은 그 신비를 과학으로 입증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동안 알로에 연구논문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대개 상업적 목적으로 특정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경우가 많아 학계의 신뢰를 얻기에 부족한 실정이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정 회사를 위해 연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재단이 학계와 산업계의 통로가 되어 부디 알로에 산업의 든든한 반석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짧고도 확신에 찬 연호의 연설이 끝나자, 참석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환호성하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동양에서 온 젊잖은 노신사의 말은 그 어떤 거창한 웅변 보다 가슴을 울리는 열정을 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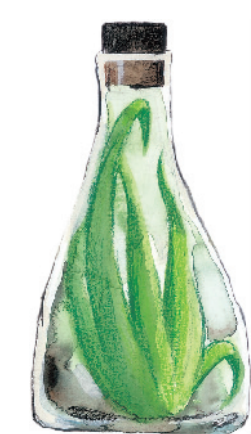
헤거스 박사가 연호와 감격어린 포옹을 나누고 연단으로 나섰다.
“알로에 연구재단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 프로젝트를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할 것입니다. 첫째는 알로에 자체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체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분야를 발전시키는 연구입니다. 지원규모는 남양알로에에서 기본 기금 외에 매년 5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장내가 일순 술렁거렸다. 단일 기금으로써 제시한 연구기금으로는 놀라운 액수였다.

공식행사가 끝나고 연회장으로 이동한 후에도 창립총회의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관심있는 분야가 맞는 과학자들끼리 곳곳에 무리를 지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연구와 정보들이 한 줄기로 모여 알로에 연구재단이라는 바다로 흘러들고 있었다.

드디어 연호가 평생을 걸고 이루고자 했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문선유 지음, <땅위에 별을 심은 사람 - 청강 이연호를 기리며>에서 발췌

The Deciding Move of One’s Life

“God has given us aloe and we should try to scientifically prove the mystery so more people can benefit from it.”



The World’s Largest Aloe Farm

43 million square feet of rich land under the hot Mexican sun was shining like a black pearl. Yunho reached for a handful of soil as his heart beat. The rich black soil softly broke into pieces in his hand. This is where Yunho will grow his dream to produce the best aloe in the world.

“Father, you do not need to worry about the cold weather anymore. This land is located right under the equator so has never suffered from cold weather. We can grow as much aloe as we like.”

Suddenly, Yunho was moved to tears. Bill who also traveled around the world to find such land became emotional. Memories of losing aloe from last year’s cold weather and not being able to deliver it to the needy passed through their minds.
A land free from cold weather which will help produce the best aloe in the world..!

It was a blessing for Bill to discover Gonzalez. After realizing how important climate conditions and soil were from last year’s cold weather he spent days and nights trying to find land where water flowed and was warm year-round. Mexico’s Gonzalez was discovered after visiting the far ends of the world.

“Father, that is called treasure mountain.”

Bill driving the tractor excitedly said to his father, Yunho as he explained about the mountain in front of the farm land.

“The landowners hid treasure in that mountain in the early 20th century when the country was going through a civil war. So for a while many people went searching for the treasure.”

Yunho smiled after listening to Bill.

“Treasure mountain. It sure is! We will plant treasure here. Aloe. To me aloe is treasure. Ha ha ha!”

Bill laughed at Yunho’s words. The two became happy imagining a field full of aloe under the treasure mountain. In the near future when an aloe farm is made the farm was sure to be the biggest aloe farm in the world. It would become the foundation of a world class company.

The World’s First Aloe Research Foundation



South Padre, a coastline that stretches along the Texas coast. Yunho saw a signpost reading Aloe Research Foundation Inaugural Meeting. Yunho couldn’t take his eyes off the signpost as he was proud.

Yunho’s meeting with Professor John Heggars, an aloe researcher at the International Aloe Science Council in January last year became the starting point for the historic day. Following Yunho’s suggestion to establish a science foundation to study aloe, Professor Heggars excitedly agreed and took the forefront and finally saw the birth of an aloe research foundation with the participation of prominent US medical and biochemical scientists in September 1989.

Aloe research was Yunho’s long-cherished hope. Scientific research would make it possible to maximize the effect of aloe and develop and process aloe to possess its natural medicinal effect. Yunho, an entrepreneur from Korea with his financial support made it possible.

“I would like to introduce Chief Director of the Aloe Research Foundation and President of Namyang Aloe, Yunho Lee who has made this occasion possible.”

With the introduction by Professor Heggars, Yunho went to the podium.

“God has given us aloe and we should try to scientifically prove the mystery so more people can benefit

from it. Although there have been research theses on aloe they have focused on reaching a goal based on commercial factors which have come short of receiving credit from the academia. I would like this foundation to connect the academia and industry and acts as bedrock for the aloe industry. Thank you.”

After Yunho’s short but strong speech participants cheered and gave a standing ovation.

The speech by an old Asian gentleman was passionate and touched the hearts of the participants. Profess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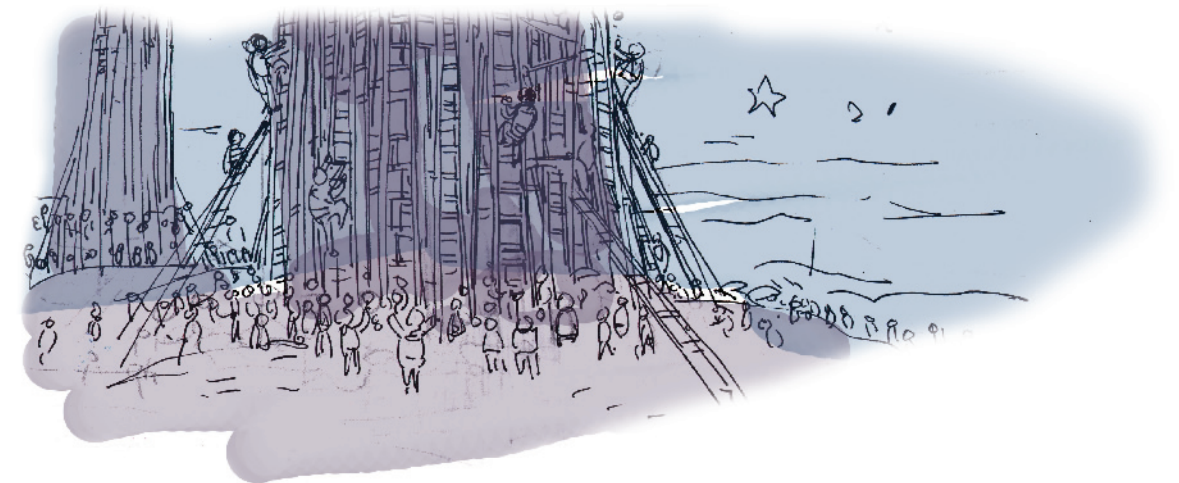
Heggars exchanged hugs with Yunho and went to the podium.

“The Aloe Research Foundation will divide the project into two areas and conduct research. First is studying aloe itself. Second is studying to develop the area which has already proven to be effective. Apart from the fund Namyang Aloe will contribute \$500,000 every year for the research.”

This was the biggest research fund for a single fund.

The excitement of the inaugural meeting continued into the banquet. Participants exchanged greetings and scientists gathered to discuss their professional interests. The research and information were coming together under the Aloe Research Foundation.

It is a moment when Yunho’s long-cherished dream was coming true.



Excerpted from Seonyu Mun’s The Man Who Planted Stars on Earth: In Memory of Yunho Lee

새로운 지식이 자라나는 농장을 만들자

지식경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지식의 전략적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서 하는 일을 더 잘하자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글 김남규 팀장, 에코넷기업본부, 기획인사팀, 에코넷 한국 홀딩스

에코넷 한국은 지난 8월 21일 착수보고회를 통해 Phase II의 주요 전략 이니셔티브의 하나였던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의 추진을 본격화했다. 지식경영 프로젝트의 추진에 따라, 에코넷 한국의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지식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식경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지식의 전략적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서 하는 일을 더 잘하자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하는 일을 더 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첫째, BSC 목표를 잘 달성하는 것 즉, 해당목표의 측정지표상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다. 둘째, 업무수행방법을 혁신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첫 번째 요소에 집중해 왔다. 그렇다고 두 번째 요소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런 활동을 확인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영역 밖에 존재했던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우리의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는 지식과 정보에 둘러싸여 일하고 있다

우리는 전략을 바탕으로 전략맵과 BSC에 기초한 목표설정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해야 할 일을 결정한다. 그러면, 개인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지식역량(Knowledge capacity)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가공하거나 새롭게 해석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만들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한다. 즉, 우리업무의 많은 부분이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일이며, 그 업무의 산출물도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혹, 업무 성격이 달라 육체적이거나 물리적인 활동이 주를 차지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업무에 지식이 접목되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하는 일을 더 잘하게 하려면?

우리가 활용하는 지식과 정보, 우리가 가진 지식역량의 수준과 가용성이 업무의 질과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지식경영 차원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들을 개선하는 것이 일을 더 잘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조건이다.

- 1) 제공되는 지식과 정보의 수준을 높인다.
- 2)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3)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들이 가져야 할 지식역량을 향상시킨다.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조직이 곧 지식을 업무에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조직이 된다.

성공적인 지식경영을 위한 과제들

성공적인 지식경영을 위해서 KM 프로젝트팀은 IT 시스템, 지식경영문화, 지식경영 제도 등 전반에 걸쳐 수많은 요소를 최적화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에코네시안들의 요구가 잘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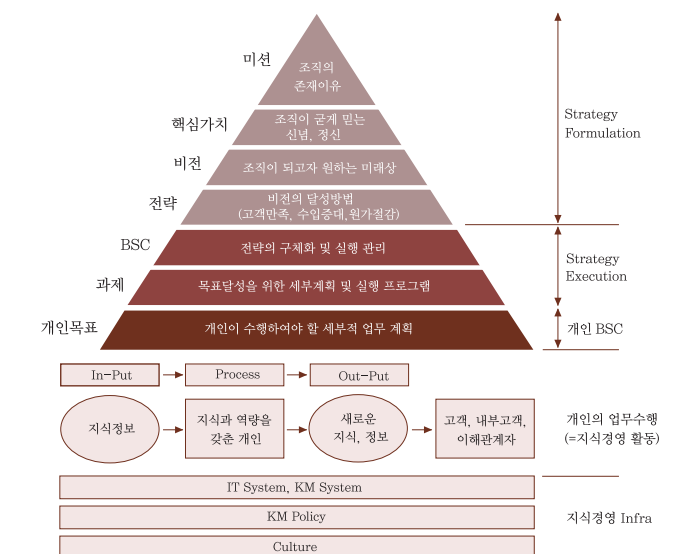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통되어야 할 지식과 정보의 정리
- 핵심지식의 선택과 집중체계 구축

- 지식의 유통경로를 정리하고 병목현상의 해결
- 효과적인 지식과 정보의 분류 및 검색 시스템 구축
- 인식의 전환(업무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중요한 지식과 정보를 조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등록해야만 업무가 종료된다는 인식)
- 전략을 짜고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필요한 지식과 역량의 현재 수준을 확인하고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체계 구축
- 혁신에 의한 기여와 지식기여를 확인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체계 구축

모든 과제들을 여기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과제들의 실행여부 및 실행방법의 결정은 위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요소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 직원들이 일하는 동안에 더 편해지는 지에 따라 최적화해야 한다.

물론, 에코네시안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일을 끊임없이 혁신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내가 만들어내는 지식과 정보가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데 꼭 필요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된다. 개인이 보유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면 우리 모두의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다.



Let's make a farm that grows new knowledge

Knowledge Management can be defined as working more effectively by improving strategic application ability of knowledge.

By Namkyu Kim, Team Manager, Planning & HRMT, ECONET Korea Holdings

ECONET Korea pushed forward with Knowledge Management, one of its Phase II core strategic initiatives, in its meeting on August 21st. Accordingly, interest on Knowledge Management is growing among ECONET Korea's employees. Knowledge Management can be defined as working more effectively by improving strategic application ability of knowledge.

What does it mean 'working more effectively'?

First, accomplishing BSC goal; in other words, accomplishing goals that are shown on measurement indicators. Second, creating new values by innovating business performance methods.

Traditionally, we have focused on the first factor. That does not mean the second factor is unimportant. The second factor was not much of a consideration since there was no system to check and recognize these activities. The second factor implies a fundamental improvement in competitiveness, and in the long run perspective, it can create a bigger value.

We are working in an environment surrounded by knowledge and information

Based on our strategies, we build a strategy map and make BSC-based goal setting which will help us decide what we need to do. Then, individuals collect knowledge and information that are necessary to do the work and

pass new knowledge and information that were created by reinterpreting information based on their knowledge capacity. In other words, since most of our tasks have to do with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 output also creates new knowledge and information. Even if some tasks require physical labor, if knowledge is added into them, the employees will be able to work more effectively and create more value for the company.

How to work more efficiently.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that we use and the level and fusibility of our knowledge capacity greatly influence our business quality and result. From the perspective of knowledge management improving the following three factors are critical to improving one's work.

- 1) Increasing the level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 2) Providing necessary knowledge and information at the appropriate time.
- 3) Improving knowledge capacity of individual who performs duty..

The organization that satisfies the above 3 factors will succeed in strategically applying knowledge to work.

Tasks for successful knowledge management

For successful knowledge management KM project team needs to optimize several factors such as IT system, knowledge management culture and knowledge management system. It is important that demands of ECONETIANS are reflected during this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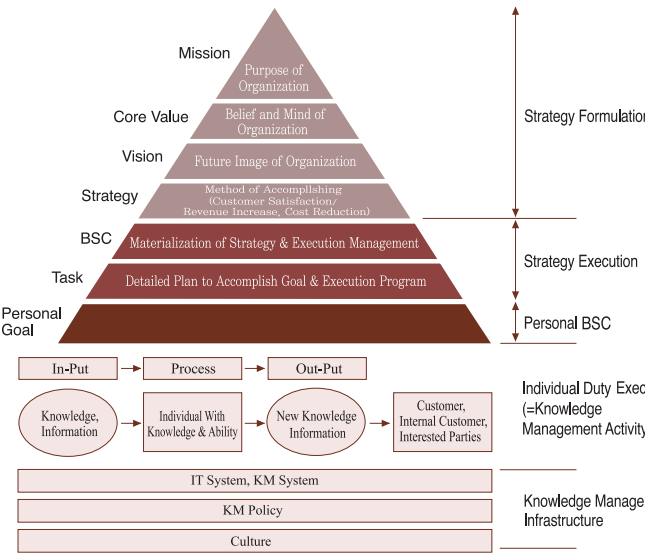
The following are examples of things to work on.

- Organiz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that need to flow during work performance.
- Building a system that centralizes and selects core knowledge.
- Managing flow of knowledge and solving bottleneck situation.
- Classify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building an effective search system.
- Change in mindset. (Having mindset that one's work ends after register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produced from work performance to be shared by other team members.)

- Building a system that identifies and helps prepare necessary knowledge and capacity when devising a strategy and drawing up a business plan
- Building a system that identifies and recognizes contribution and knowledge contribution from innovation.

It is difficult to list all the tasks but the decision to perform the tasks and method of performance should be optimized depending on whether it will help the employees and help improve the above mentioned three factors.

Of course there are areas where ECONETians have to participate and work at. Above al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for everyone to continuously innovate themselves and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Everyone needs to keep in mind that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that I make is vital for other people or can be of big help. Everyone's productivity can rise if an individual share one's knowledge and information with others by engaging in servant leadership.



Wellness

영혼의 수양과 긍정적 사고로 시작되는 ECONET의 웰니스!



글 권수남 대리, CTO실, 에코넷 한국 홀딩스

고 이연호 회장이 처음으로 알로에 농장을 가꾼 이래, 우리는 눈부시게 발전해 왔고,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라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우리는 Univera의 정신으로 알로에와 천연물을 소재로 한 정직한 제품들을 인류에게 선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제품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기여해 왔고, 이제 더 나아가 우리 고객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더욱 증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최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웰니스 서비스의 요구사항들을 충족 및 제공하기 위한 기초 계획을 마련 중이다. 고객에게 최상의 건강과 행복을 제공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우리는 웰니스의 네 가지 요소인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조화로 이루어진 건강과 안정된 삶을 이루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 중이다.

우리가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라는 미션을 육체적 건강과 아름다움의 영역에서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건강까지 아우르는 범위로 확장한다는 것에 대해, 표면적으로 처음에는 힘든 과제로의 여정이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좀더 간단하고 세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고객들에게 웰니스의 삶과 “행복”한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궁극적으로 마음과 생각의 컨트롤을 통해 찾을 수 있다는 지침서를 제공하게 되는거라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 Econetian들은 고객에게 그러한 소중한 지침서를 제공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로 이끄는 영혼의 수양과 긍정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자.

영혼의 수양

영혼의 수양은 우리의 삶을 군더더기 없이 정리해 준다.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키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영혼의 수양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난관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길을 명료하게 안내할 것이다. (의료 교육과 연구를 위한 Mayo 재단, 2006년 7월 20일)

여기서 영혼의 수양을 특정 종교와 연결지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는 많은 세계인들이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한 하나의 마인드 컨트롤의 방법이고, 삶의 지표를 세우고 확고한 견해를 갖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이기에 때문이다. 영혼의 수양은 먼저 자아를 확립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케 하고,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들(자궁심의 향상과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고 건강한 릴레이션십의 지속과 발전)을 이루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영혼의 수양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다.

1.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개인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2. 당신의 존재 이유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 내적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특히 당신이 힘든 시기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
3.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
4. 교회와 가족, 혹은 산책길에 만난 사람과 정신적 교류를 통해 당신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준다.
5.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 이는당신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 (Mayo Clinic, 2006)

나이가 들고 여러가지 다른 경험을 하면서 영혼의 수양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영혼의 수양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인의 행복’이라는 기본 개념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영혼의 수양이라함은 끊임없는 내적탐험을 통해 자신과 그 외적인 것들과의 관계들을 발전 및 조화시킴으로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평생 과업이 될 것이다.

오늘부터 영혼의 수양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간단한 방법으로 기도하기, 일기 쓰기, 믿을 수 있는 조언자나 친구 찾기, 감동적인 책 읽기와 새로운 경험하기 등이 있다. (Mayo Clinic, 2006)

긍정적 사고

당신의 잔은 반이나 비어 있는가? 아니면 반이나 차 있는가?

당신은 아마도 이 질문을 수십 번 이상 들어봤을 것이다. ‘명상’ 보다 당신의 정신을 강하고 기쁘게 만드는 더 간단한 방법은 바로, 긍정적 사고다.

긍정적 사고가 인간의 수명 연장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Mayo Clinic (2007)에 의하면,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당히 건강하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다고 한다.



긍정적 사고를 통해 얻게 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1. 스트레스 경감 2. 감기 저항력 강화 3. 행복감과 건강 향상 4. 관상동맥 질병 위험도 경감
- 5. 폐기종과 같은 폐질환 시 호흡 향상 6. 고난 시 대처능력 향상.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볼 때, 행복은 상황이나 사물에 대한 인식과 사고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긍정적 사고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잠시 뒤돌아 생각해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낙관주의자인가? 아니면 비관주의자인가? 당신의 잔은 반이나 차 있는가? 아니면 반이나 비어 있는가?

우리는 매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머리 속에서 생각을 하며 끊임없이 독백을 한다. 물론 긍정적인 독백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당신이 만약 비관자 쪽에 속한다고 느껴진다면 부정적인 독백을 지속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과 함께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낙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금만 비평하고, 좀더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긍정적인 독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 소개한다.

부정적 독백	긍정적 전환
나는 해본 적이 없어.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야.
너무 복잡해.	다른 각도에서 해결해보자.
문제 해결 방법이 없어.	필요하면 발명하게 된다.
시간이 충분치 않아.	일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보자.
불가능해.	가능하게끔 해 볼게
너무 과격한 변화야.	한번 시도해보자.
아무도 나와 대화하고 싶어하지 않아.	대화창구를 열어볼 수 있는지 볼게.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없어.	한번 다시 시도해볼게.

(Mayo Clinic, 2007)

모든 ECONETian들에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

이 불변의 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때로는 논리가 통하지 않아 낙담하게 되고, 무력함을 느끼고, 걱정하게 되며 절망에 놓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의미를 풍요롭고 명확하게 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영혼적 수양과 긍정적 사고이다.

자, 이제 당신의 잔은 반이나 비어 있는가? 아니면 반이나 차 있는가?



Wellness

Wellness at ECONET with Spirituality and Positive Thinking !



By J. Soonam Kwon, Assistant Manager, Division of CTO, ECONET Korea Holdings

Since the first plantation of aloe by late Chairman Yunho Lee, we have excelled and continue to fulfill our mission of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For the last 30 years and more, we have delivered honest products based on aloe and natural substances with the Univera mind.

Our products have served thousands of people for their health and beauty, and almost with ethical responsibility to further improve our customers’ healthy and happy lives, the ECONET is about to embark on planning out ways to provide “wellness” related services. In this stance, we are advancing our products and services to meeting the current demands on “healthy and happy life” in trend, which encompasses the four elements of wellness: Balanced state of physical, mental, social, and spiritual wellbeings.

As we are expanding the scope of delivering our mission of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into mental, social, and spiritual health from physical health and beauty, at first glance it may seem rather somewhat of an arduous journey. But what it all comes down to is to provide guidelines to taking control of mind and thoughts, so that one can find true meanings in life. Having said that, the Econetians can take the first stance with Spirituality and Positive Thinking: The two major ways in which you can obtain adequate control of your mind and thoughts that ultimately will lead to a content life.

Spirituality:

Spirituality after all is what helps us to put our lives into a context and “arises from your connection with yourself and with others, the development of your personal value system, and your search for meaning in life.” (Mayo Foundation for Medical Education and Research, July 20, 2006). Spirituality does not have to be necessarily connected to a specific belief or religion, that it can simply be a way to putting your life into a perspective. First by forming a relationship with yourself and then by letting it be nurtured by



relationships with others, your spirituality will be culminated in a sense of purpose in life, which can lead to improvement of self-esteem and maintaining healthy relationships with those that are important to you.

In essence, spirituality can help you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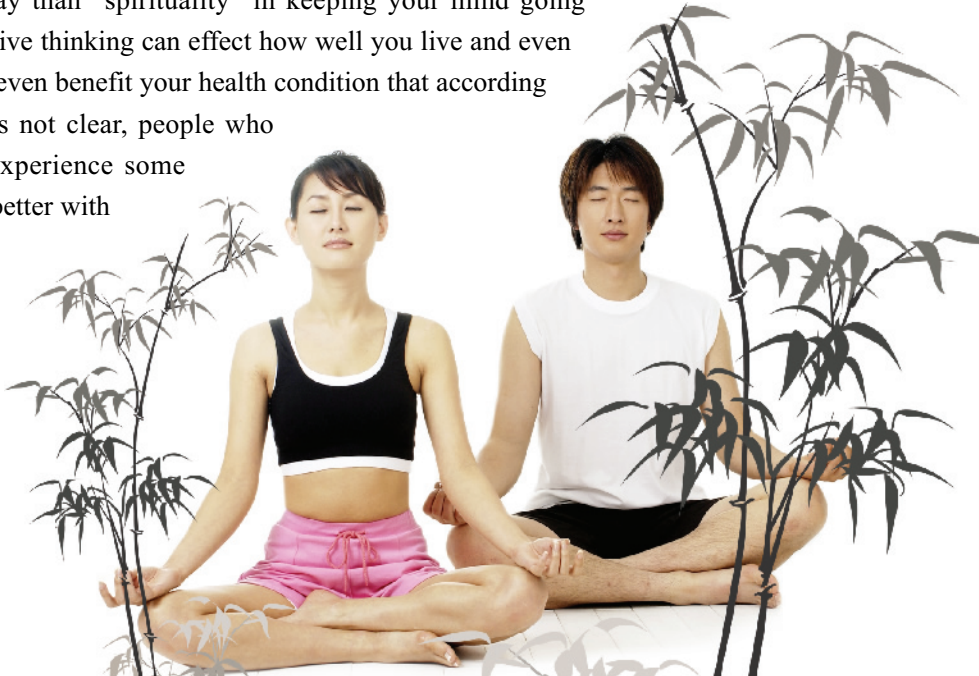
- 1. Focus on personal goals by uncovering what’s most meaningful in your life
 - 2. Connect to the world feeling that you have purpose in the world, which can lead to an inner peace, especially during difficult times
 - 3. Release control that you are not responsible for everything that happens in life
 - 4. Expand your support network whether in church, in your family, or even in walks by sharing spiritual expressions
 - 5. Lead a healthier life by being able to better able to cope with stress and heal from illness or addiction.
- (Mayo Clinic, 2006)

Also keep in mind that as you age and gain different kinds of life experiences, your personal definition of spirituality may change. But the core basis of spirituality does not and should not change: Your wellbeing. Therefore,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practicing spirituality is a momentum of ongoing life-long process that evolves within yourself along with dynamic internal journeys to your wellbeing and happiness.

Why not trying to cultivate your spirituality today? Some simple ways you can begin immediately are prayers, keeping a journal, seeking out for trusted advisor or friends, reading inspiration stories, being open to new experiences, etc. (Mayo Clinic, 2006)

Positive Thinking:

Is your glass half-empty or half-full? You probably heard of this question more than you can count. Positive thinking perhaps is the simpler way than “spirituality” in keeping your mind going strong and happy. Research shows that positive thinking can effect how well you live and even how long you live. (Mayo Clinic, 2007). It may even benefit your health condition that according to Mayo Clinic, although the exact cause is not clear, people who engage in positive thinking significantly experience some form of health benefits and are able to cope better with stressful situations.



Some of the health benefits were:

- 1. Decreased stress; 2. Greater resistance to catch cold; 3. Sense of wellbeing and improved health; 4. Reduced risk of coronary artery disease; 5. Easier breathing in case of having certain lung disease like emphysema; 6. Improved coping ability for women with high-risk pregnancies; and 7. Better coping skills during hardship. (Mayo Clinic, 2007). Hence, your happiness in life, at least to some degree, seems to depend on your perception of situations or things. Subsequently, the goal here is to be able to exercise positive thinking or attitude. Now try to retrospect and ask yourself: Are you an optimist or pessimist? Is your glass half-full or half-empty?

Whether you are optimist or pessimist, you are endlessly engaging in self-talk in order to put your thoughts into an action- whether positive or negative. The stream of either positive or negative thoughts run through your head everyday and each and every minute. Of course what you would want is the positive self-talk. However, if you find yourself to be a pessimist, you can learn to become an optimist by constantly evaluating your negative self-talks and modify by putting positive spin on them. Here is how you can practice positive self-talks, which as you’ll notice, contain less criticism and more self-acceptance.

Negative self-talk	Positive spin
I've never done it before.	It's an opportunity to learn something new.
It's too complicated.	I'll tackle it from a different angle.
I don't have the resources.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There's not enough time.	Let's re-evaluate some priorities.
There's no way it will work.	I can try to make it work.
It's too radical a change.	Let's take a chance.
No one bothers to communicate with me.	I'll see if I can open the channels of communication.
I'm not going to get any better at this.	I'll give it another try.

(Mayo Clinic, 2007)

Now to all Econetians~! There are things you can control in life and things you can’t. This seems to be the ever-existing truth in th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to come. We must endure and deal with stress and irrational situations throughout our lives and sometimes even logics don’t work, and we may find ourselves in dismay, helpless, anxious, and even despair. But now you can be equipped with the two mental power, Spirituality and Positive Thinking, and have a sense of control of your mind and thoughts. You can find purpose and meanings in your life, less stressed, and even gain health benefits!

Is your glass half-empty or half-full?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UP들
UP waving to the audience.

2007 유니베라 연례회의 새로운 각오

글 이세현, Executive Administrative Manager, 에코넷 미국 홀딩스

시애틀 공항을 떠난지 5시간 반만에 알래스카 항공 18편은 뜨거운 지열이 춤추고 있는 올란도 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다. 기자는 유니베라 미국의 연례 컨벤션 참가차 한국에서 오시는 36분의 유니베라 플래너들과 임직원들을 맞이하기 위해 올란도에 막 도착하는 중이었다.

이미 출발 전에 3500장의 표가 매진되었고 추가한 500장마저도 매진되었다는 사실로 이번 행사의 성공을 어느정도는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호텔 도착 직후부터 떠날 때까지 마주친 수많은 어소시에이트들의 관심과 흥분은 과히 그 짐작의 정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로비에서, 식당에서, 호텔 내의 모든 사람들이 유니베라와 유니베라 제품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듯 했다.

컨벤션은 플로리다 올란도의 월트 디즈니 월드 단지내에 있는 돌핀 호텔에서 17일 금요일 아침 9시에 시작하여 다음날인 18일 토요일 시상식과 축하 파티로 끝나는 일정이었다.

Guest Speaker 로 초빙된 미국 올림픽 여자 체조부문 첫 번째 금메달 수상자 Mary Lou Retton과 유명한 저서 “Color Code”의 저자 Taylor Hartman의 연설은 컨벤션을 더욱 흥미롭게 했다.

기자와 한국에서 오신 방문단은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토요일의 시상식에 참가하는 영광을 가졌다. 본격적인 시상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니베라 미국의 사장겸 에코넷 미국 홀딩스의 사장인 스튜어트 오킬트리가 한국 방문단 전체를 무대 위로 초대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여자들이 덕택에 무대는 순

Univera Annual Convention 2007



1 롭 칼니츠키상 수상자 - 어소시에이트 Dr. Doug Pousma
Winner of Rob Kalintsky award- Associate Dr. Doug Pousma

2 무대에 올라간 UP들 UP on stage

3 선물전달식 Gift Presentation

4 연설중인 김영환 사장
President & CEO
Yeonghwan Kim giving a speech

5 연설중인 이병훈 총괄사장
Chairman & CEO Bill lee giving a speech

6 어소시에이트들과 담화중인 이병훈 총괄사장
Chairman & CEO
Bill lee speaking with the associates

Discover Renewal

식간에 화려한 색의 바다로 변했고 행사 참가자들은 기립박수와 휘파람으로 방문단을 환영했다. 단체 인사후 유니베라 한국 김영환 사장은 인사말과 함께 신입 블루 다이아몬드들의 내년 4월 한국 Convention초청장을 스튜어트 사장께 전달했다.

그 후 행사는 올해의 어소시에이트 상 (존 터훈, 다이아몬드), 이연호 상 (스티븐 처니스키, Chief Science Officer, 유니베라 미국), Rob Kalnitsky Customer Commitment Award (직원: 테리 베이커, 고객관리부 상무, 유니베라 미국 / 어소시에이트: Dr. Doug Pousma, Gold)의 시상으로 이어졌다. 모든 수상자들이 유니베라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꿨는지, 그리고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에 대해 얘기했고 예외없이 기립 박수와 휘파람, 그리고 환호성이 잇달

았다. 행사는의 열기는 저녁 행사의 마지막 순서였던 이병훈 총괄 사장의 연설 때에 극에 달했다. 인기 가수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환호성 속에 무대에 오른 이병훈 총괄 사장은 우리의 사업방식과 제품이 왜 성공할 수 밖에 없는지를 상기시키면서 에코넷의 미션에 대해 역설했다. 행사 내내 수십 번을 일어났다 앉았다 했지만 전혀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번 행사에는 100장의 입석권까지 포함 총 4100장의 표가 팔렸다고 한다. 이미 내년 시애틀에서 있을 컨벤션의 입장권이 4000장이나 판매되었으며 총 8,000 장의 입장권 판매를 거뜬히 내다보고 있다고 한다.

2008년, 또 다른 기록 갱신의 컨벤션을 기대해보며 잊지 못할 이벤트에 참가할 기회를 주신 유니베라 미국에 감사드린다.



연설중인 이병훈 총괄사장
Chairman & CEO Bill Lee giving a speech

Univera Annual Convention 2007 **Discover Renewal**

By Sean Lee, Executive Administrative Manager, ECONET USA Holdings

After a five and a half hour flight from Seattle, Alaska Flight #18 glided onto the tarmac at the Orlando airport dancing in haze of heat. I arrived in Orlando to greet 36 Univera planners and staff from Korea who were attending the Univera USA annual convention.

I was already predicting the success of this convention from the fact that the initial 3,500 tickets were sold and an additional 500 seats were sold out, too. But the interest and the excitement I witnessed in the Univera Associates from the moment I arrived at the hotel until the moment I left were beyond my imagination. In the elevator, in the lobby, in the restaurant, it seemed that everybody was talking about Univera and the Univera products.

The convention was held in the Dolphin Hotel at the Walt Disney World resort in Orlando, Florida. It began at 9AM

on Friday, September 17, and concluded with the Award Ceremony and the Celebration party on Saturday, September 18. USA's first female gymnastic Olympic gold medalist, Mary Lou Retton, and the author of the famous book "Color Code", Taylor Hartman, were invited as guest speakers and added even more excitement.

Our Korean visitors were invited to the Saturday award ceremony, which was the highlight of the event. Before the award ceremony, Stuart Ochiltree, CEO of Univera USA and Univera USA Holdings, invited all of us on the stage. The stage instantly turned into a wave of colors thanks to the ladies in traditional Korean dress. All participants greeted us with a standing ovation and cheerful whistles. After the group greeting, Youngwhan Kim, President & CEO of Univera Korea, delivered his greeting as well as an invitation to Stuart Ochiltree for

Univera Annual Convention 2007



- 1 올해의 어소시에이트상 수상자 존 터훈의 아내 팻 터훈과 스튜어트 사장
Winner of this year's associate award, Pat Terhune and President Stuart
- 2 이연호 상 수상자 스티븐 체니스키와 그의 가족 그리고 유니베라 임원들
Winner of Yunho Lee award, Steven Cherniske and his family along with directors of Univera
- 3 이연호 상과 롬 칼니츠키 상 수상자들이 유니베라 임원들과 함께
Winners of Yunho Lee award and Rob Kalnitsky award along with Univera directors
- 4 재밌는 복장의 행사참가자들
Participants of Interesting Costume Party
- 5 행사직후 무대에서 모두들 한 컷
A picture taken on the stage after the event

Discover Renewal

new Blue Diamonds to attend next April's convention in Korea. This was followed by the presentation of awards for the Associate of The Year Award (John Terhune, Diamond), Yunho Lee Award (Stephen Cherniske, Chief Science Officer, Univera USA), and the Rob Kalnitsky Customer Commitment Award (employee: Teri Baker, Director of Customer Care / Associate : Dr. Doug Pousma , Gold). All recipients spoke about how Univera has changed their lives and how bright their future is. Everyone in the audience, without exception, responded with an ovation, applause and whistles.

The event reached its peak with the last speech of the evening from our Chairman & CEO, Mr. Lee. With the crowd hailing him as he walked up to the stage, it reminded me of a rock concert. He stressed ECONET's

mission, reminding us that our business model and product can achieve nothing but success. I didn't feel tired at all, even after standing up and sitting down countless times.

I heard a total of 4,100 tickets were sold for this convention, including 100 tickets without seats. And, 4,000 tickets have already been sold for next year's convention which will be held in Seattle, Washington. It appears that 8,000 tickets will be sold very easily.

I look forward another record breaking convention in next year and I'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Univera USA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attend this unforgettable event.

작은 고추가 맵다



글 박정아 기자, 고객지원팀, 유니베라 한국

‘작지만 위대한’이란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
바로, 유니베라 한국 중부 영업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이규남 과장이다.
그가 고객으로 섬기고 있는 대리점 사장님들도 똑같은 말을 한다.

이규남 과장을 처음 대하면, 체구가 작은 순수한 아이 같다고 생각하다가, 일단 그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가 매우 큰 사람임을 알게 된다.

아이처럼 순수함과 바다처럼 넓은 가슴과 높은 산처럼 커다란 이상을 품고 있는 이규남 팀장!

이규남 팀장은 고 이연호 회장께서 남양알로에(현 유니베라한국)에 근무했던 마지막 해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를 모르는 유니베라 한국 가족은 없다. 비단 오랜 기간 동안 에코넷 산하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후배들에게 장난 치듯 먼저 다가가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는 이규남 팀장과 함께라면 언제든 그곳이 사막이든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라도 달려가겠다는 후배들과 동료들에게서 그의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즐겁고 신바람나게 일하게 할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다. 늘 영업하라, 경영하라 피곤한 대리점 사장님들과 매일매일 고객을 만나며 유니베라 제품을 전달하는 유포(UP)들, 또 업무에 시달리는 후배 직원들에게 그의 환한 웃음과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소중하다.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의 방법을 그를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예쁜 두 딸의 아빠이기도 한 그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작은 이슬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한다. 이규남 팀장이 이번 호 자랑스런 에코네시안으로 소개되는 것은 2006년, 2007년 유니베라의 직원에 의해 추천된 쿨앤짱 12명 중 임직원들의 참여를 통한 설문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동료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는 그의 모습을 통해 모든 에코네시안이 행복해지는 팀(TIP)을 얻게 되길 바란다.



Big things come in small packages

By Jeongah Park, CS Team Manager, Univera Korea

*There is a man who fits the saying “Small but Great.”
He is sales manager Gyunam Lee who is in charge of Univera’s Korea Jungbu Sales Team. The owners of the agencies who are Mr. Lee’s customers say the same thing.*

At first sight manager Gyunam Lee looks like an innocent child because of his small figure but after having a conversation and working with him you get to know that he’s the complete opposite of his figure.

Sales manager Gyunam Lee has the innocence of a child, a heart that is as wide as the ocean and a dream that is as high as a mountain.

Manager Gyunam Lee joined Namyang Aloe (currently Univera Korea) right before the year late Chairman Yunho Lee left the company so everyone at Univera Korea knows him. His recognition is not just from working at a subsidiary of ECONET for a long time.

Manager Gyunam Lee who makes the first approach to his juniors and treats them

with love is followed by his juniors and respected by his colleagues who are always ready to work with him in any circumstance.

Not everyone can make people around them work happily and with enthusiasm. His smile and warm words are like an oasis in the desert for the owners of the agencies who are always busy selling and managing their products and stores, for the UPs who meet with customers everyday and deliver Univera products and to the juniors who are loaded with work.

One can get a glimpse of how to make a happy working environment through him. As a father of two beautiful daughters he hopes everyone around him is happy and wishes to become a small part of everyone’s happiness.

Manager Gyunam Lee was chosen as this edition’s proud ECONETian by the 12 cool and best Univera employees from 2006 and 2007.

I hope everyone can get a few tips from Mr. Lee’s way of life which brings him happiness and popularity in the office.



Gyunam Lee



Go! Go! Our Team

인재가 미래다 - HR팀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이 있다.

인사를 제대로 해야 조직이 잘 굴러가고, 일도 순리대로 잘 풀린다는 뜻이다.

사람이 중요함을 이르는 이 말처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사팀은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닐 수 없다. 이 중요한 업무를 위해 오늘도 땀흘리고 있는 에코넷의 HR팀을 소개하고자 한다.

Human capital leads to the bright future - HR Team

Human Resources Decide Everything!

As the Korean saying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the HR team in a company which deals with such business is also important.

I'd like to introduce ECONET's HR teams.



에코넷 한국 홀딩스 / **ECONET Korea Holdings**



1. 부서명 : CKO실, 기획인사팀



2. 직원수 : 4명 (이재은 상무, 김남규 팀장, 문길성 대리, 곽은정 대리)

3. 하는 일

에코넷 한국 홀딩스의 기획인사팀은 에코넷 한국의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1) 인사, 교육, 상표권 관리 분야의 Shared Service를 제공하며

2) 인사정책의 추진, BSC 시스템 등의 전략운영시스템 향상관리, 지식경영의 추진 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3) 글로벌 에코넷 문화의 구축, 글로벌 표준화의 추진, 에코넷 시너지 창출을 위해 에코넷 미국 홀딩스와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1. Team Name : CKO Division, Planning & HRMT

2. Number of employees : 4 (James J. Lee / Vice President, Namkyu Kim / Manager, Gilsung Moon / Assistant Manager, Eunjung Kwak / Assistant Manager)

3. What we do

The Planning and HR team of ECONET Korea Holdings is engaged in the following activities.

1) Providing Shared Service in personnel, education and trademark right areas

2) Promoting HR policy, development and management strategic operation system such as BSC system, promoting knowledge management

3) Building global ECONET culture, promoting global standard, maintaining a close partnership with ECONET US Holdings to create ECONET synergy effect



왼쪽부터 : 이재은, 김남규, 곽은정, 문길성
From left : James J. Lee, Namkyu Kim, Eunjung Kwak, Gilsung Moon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1. 부서명 : 경영전략본부, 전략기획팀



2. 직원수 : 6명 (유성곤 상무, 조준용 팀장, 김경미 대리, 방상학 대리, 서성봉 사원, 민지희 사원)

3. 하는 일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의 파수꾼으로서 유니베라의 전략, 인사, 조직,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왼쪽부터 : 서성봉, 김경미, 민지희, 방상학, 조준용, 유성곤
From left : Sungbong Seo, Kyungmi Kim, Jihee Min, Sanghak Bang, Junyong Cho, S.K.Yoo

1. Team Name : Strategy Planning Division, Strategy Planning Team

2. Number of employees : 6 (S.K.Yoo/ Managing Director, Junyong Cho/ Team Manager, Kyungmi Kim/ Assistant Manager, Sanghak Bang/ Assistant Manager, Sungbong Seo/ Staff, Jihee Min/ Staff)



3. What we do

As a lookout for a happy working environment the strategy planning team is responsible for Univera' s strategy, HR, organization and education.



네이처텍 / Naturetech



1. 부서명 :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팀

2. 직원수 : 4명 (안기억 경영지원본부장, 조일영 대리, 최순미 대리, 김태갑 사원)

3. 하는 일

경영기획팀은 경영 계획 수립, BSC 운영, 이사회 운영, 인사, 노무관리, 급여 및 전반적인 사내/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1. Team Name : General Management Division, Management Planning Team

2. Number of employees : 4 (Kieuk Ann, Division Manager, Youngil Cho Assistant Manager, Soonmi Choi Assistant Manager, Taegap Kim)

3. What we do

Management Planning Team is responsible for forming management planning, BSC operation, operating board of representatives, HR, personnel management, salary and education.



왼쪽부터 : 조일영, 안기억, 최순미, 김태갑
From left : Youngil Cho, Kieuk Ann, Soonmi Choi, Taegap Kim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윗줄 왼쪽부터 : 강승원, 임상득, 표창민, 김영선, 어윤정, 박찬영, 박경민
아랫줄 왼쪽부터 : 차경섭, 장미라
Top from left : Seungwon Kang, Sangdeuk Lim, Changmin Pyo, Younjeong Eo, Chanyoung Park, Kyungmin Park
Bottom from left : Kyungseup Cha, Mira Jang

1. 부서명 : 경영지원본부, 총무인사팀



2. 직원수 : 5명 (표창민 상무, 강승원 팀장, 박찬영 대리, 장미라 사원, 어윤정 사원)

3. 하는 일

경영지원본부 총무 인사팀은 유니젠의 전체 살림을 맡고 있는 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니젠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 업무, 행정업무 부터 인사와 교육부분 등을 포함하여 전략과 연계된 중요한 정책들까지 어우르는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다.

1. Team Name : General Management Division, HR & General Affairs Team

2. Number of employees : 5 (Changmin Pyo / Managing Director, Seungwon Kang / Team Manager, Chanyoung Park / Assistant Manager, Mira Jang, Younjeong Eo)

3. What we do

General Management Division, HR & General Affairs Team oversees all general activities of the company. The team is in charge of events, administration, personnel, education and policies related to strategy.



에코넷 미국 / *ECONET USA*



- 1. 부서명 : 에코넷 미국 인사부
- 2. 직원수 : 8명 (윤경수 부사장(CSO), 게리 데스트럽 인사임원, 게일 메리트 스미스 인사과장, 타라 아담스, 애나가르시아, 론 님, 제니퍼 김, 에스메랄다 이니게즈)

3. 하는 일
부서 Mission Statement가 잘 설명하고 있듯이 인사부는 “효과적인 정책과 절차, 방향 제시, 교육, 그리고 서비스의 끊임없는 개발과 적용을 통해 에코넷의 직원들을 지원하고 존중하며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

인사부 직원들은 주간 직원 점심식사, 분기별 직원 모임, 그리고 연례 회사 여름 야유회등을 주관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봉사정신을 권장하며, 친근하고 생산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에코넷 미국의 좋은 직장 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알로콥 미국의 에스메랄다 이니게즈는 텍사스의 직원들에게도 똑같은 정책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레이시의 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 1. Team Name : *ECONET USA Human Resources Department*
- 2. Number of employees : 8 (KS Yoon / Chief Strategy Officer, ECONET USA Holdings, Gary Dastrup / Human Resources Director, ECONET USA Holdings, Gail Merritt-Smith / Human Resources Manager, ECONET USA Holdings, Tara Adams / Human Resources Assistant, ECONET USA Holdings, Ana Garcia / Receptionist, ECONET USA Holdings, Ron Gnyp / Maintenance Personnel, ECONET USA Holdings, Jennifer Kim / Employee Benefits Administrator, ECONET USA Holdings. Esmeralda Yniguez / HR and Executive Project Supervisor, Aloecorp USA)

3. What we do
Our HR mission statement adequately describes what we do; “To support, honor, and value the people of the ECONET with the consistent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of effective policies, procedures, direction, training, and service excellence.”

Collectively, the HR team does its best to set the tempo and atmosphere for ECONET USA by facilitating the weekly employee lunches, organizing quarterly employee meetings and the annual employee summer picnic, promoting an attitude of service by setting the example, and constantly striving to create a friendly and



론 님
Ron Gnyp (Maintenance Personnel, ECONET USA Holdings)



에스메랄다 이니게즈
Esmeralda Yniguez (HR and Executive Project Supervisor, Aloecorp USA)

productive workplace environment. Esmeralda Yniguez at Aloecorp USA in Texas works very closely with the team in Lacey to apply the same policies and procedures for all of our Texas employees.



알로콥 중국 / *Aloecorp China*



- 1. 부서명 : 인사부
- 2. 직원수 : 1명

3. 하는 일
줄리아 팀장은 직원채용, 교육, BSC관리, 고용계약, 해고 등의 전반적인업무를 담당한다.



줄리아 / Julia

- 1. Team Name : *HR Management*
- 2. Number of employees : 1
- 3. What we do
Manager Julia is responsible for the overall work, employee recruitment, education, staff BSC management, labor contract, dismissing etc.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현재 구원모 사장님과 허영문 대리가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현지 사정으로 사진 제출이 어려운 점을 양해바랍니다.
President Wonmo Ku and Assistant Manager Youngmoon Heo are working for Unigen Russia. They were not able to send pictures.



에코넷으로의 초대

네이처텍의 숨은 저력! 칭찬 & 베스트 사원!

네이처텍은 밝고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을 작고 세세한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작은 행복과 사랑의 실천운동이야말로 네이처텍을 세계 최고의 천연제품 제조전문기업 으로 우뚝 서게 하는 원동력일 것이다.

글 우길종 대리,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네이처텍



왼쪽부터 : 박성수, 김정희
From Left : Sungsoo Park, Jeonghee Kim



Invitation to ECONET

네이처텍의 모든 임직원은 매월 즐거운 고심거리가 하나 생겼다. 2007년 9월부터 새로이 실시하는 ‘칭찬&베스트 사원’ 선정 때문이다.

사우회 임원이 주체가 되어 매월 칭찬하고 싶은 직원과 테마별 월별 베스트 사원을 추천하여 이에 동의하는 직원들이 투표하여 선정하는 제도인데, 칭찬하고 싶고 베스트 사원이라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제1회 ‘칭찬&베스트 사원’을 선정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네이처텍 역사에 길이 빛날 ‘제1회 칭찬&베스트 사원’의 영광은 SCM팀 박성수 사원과 생산기술팀 김정희 대리에게 돌아갔다.

칭찬 사원으로 선정된 박성수 사원은 1개월간 스마일 배지를 착용하는 영예를, 베스트 드레서 사원으로 선정된 김정희 대리는, 베스트 사원은 선정사유에 맞는 행동을 매월 월례 조회시 직원들 앞에서 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생애 최초로 패션을 하는 대단한 영예(^^)를 안게 됐다.

드디어 역사적인 네이처텍의 ‘제1회 칭찬&베스트 사원’ 시상식이 9월 첫 근무가 시작되는 9월 3일 월례조회 때 거행됐다.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립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질렀는데, 영원히 잊지 못할 ‘제1회 칭찬&베스트 사원’ 시상식의 대미는 베스트 드레서로 선정된 김정희 대리가 장식했다.

약 (네이처텍 전체 직원수×2에 해당하는 숫자)개에 달하는 네이처텍 모든 임직원의 눈동자가 일제히 쏠리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쭈스러워서 시선을 어디에다 뒹굴지 모르며 멍뚱하게 위경을 하는 김정희 대리를 보며 임직원 모두가 박장대소를 하며 9월을 활기차게 시작했다.

두 분의 유명인사를 만나기 위해 필자는 약 1분이라는 어마

어마한 시간을 휴게실에서 기다려야만 했다(ㅋㅋ ^^).

우선 처음으로 인터뷰한 스타는 박성수 칭찬 사원이다. 평소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박성수 사원을 칭찬하는 동료와 임직원들이 많았는데, 직접 인터뷰를 해보니, 왜 그가 ‘제1회 칭찬 사원’에 선정됐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진심으로 회사와 동료들을 사랑하고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의 뜨거운 열정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만난 스타, 김정희 대리는 평소 집사람이 코디해주는대로 입었는데 베스트 드레서로 뽑히는 영예를 얻었다며 모든 공을 부인에게 돌렸다. 아울러 못한 남편 만나고 생하면서 삶은 내색 한번 안하고 시장 곳곳을 뒤져 가장 멋지고 세련된 옷으로 자신을 코디해준 부인에 대한 감사와 애정고백까지!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작은 아이디어로 전 직원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네이처텍..!

네이처텍은 밝고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을 작고 세세한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4월에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5월 Beer party, 7월에 당구 및 홀라후프대회, 8월엔 칭찬&베스트 사원! 등 모든 임직원이 동질감을 함께 느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세계 최고의 Fun 회사를 만들고 있다.

이런 작은 행복과 사랑의 실천운동이야말로 네이처텍을 세계 최고의 천연제품 제조전문기업 으로 우뚝 서게 하는 원동력일 것이다.

에코네시안 여러분!

여러분도 네이처텍의 칭찬&베스트 사원에 도전해 보지 않으실래요?

Invitation to ECONET

Naturetech’s Hidden Strength! The “Most Praiseworthy” and “Best in Category” employees

Naturetech begins its search to find the dynamic force for change in small, seemingly trivial things. Putting such love and joy into practice is what makes Naturetech stand tall and proud as the world’s leading natural botanicals company.

By Kiljong Woo, Assistant Manger, Management Support Team, Naturetech

The staff and employees at Naturetech now have to wrestle with a happy problem each month: they have to decide who will be named “Most Praiseworthy” and “Best in Category,” two honors newly instituted since September 2007.

The board members of the employees association host this event, in which an employee deserving praise and a “best” employee in a monthly themed category are nominated and voted on by their coworkers. The difficulty lies in the fact that there are so many employees who are deemed eligible for each award.

As a result, the selection of the first “Most Praiseworthy” and “Best in Category” employees was beset with numerous obstacles. In the end, the inaugural accolades went to Sungsoo Park of the SCM Team and Jeonghee Kim of the Production Technology Team.

Sungsoo Park, who has been named September’s “Most Praiseworthy” employee, got to wear a “Smile Badge” for the duration of the month. Jeonghee Kim, as the “Best Dresser,” was given the great honor(?) of putting on a fashion show in front of the entire staff,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ion that the employee named “Best in Category” must exhibit behavior befitting the title at the monthly meeting.

The historic presentation of Naturetech’s very first “Most Praiseworthy” and “Best in Category” awards took place during the monthly meeting on September 3, the first business day in September.

Everyone gave a standing ovation and raised loud cheers for the recipients. The ceremony’s rousing finale was provided by “Best Dresser” Jeonghee Kim. With the eyes of Naturetech’s entire staff focused on him, Kim flushed scarlet and awkwardly came down the catwalk, at a loss as to where to rest his gaze. The audience burst into cheerful laughter at the sight, making a lively start to the month of September.

To meet with the two sudden celebrities, I had to wait no less than a whole minute in the employees lounge.

My first interview was with September’s “Most Praiseworthy” employee, Sungsoo Park.

I’d often heard many of Park’s peers and supervisors commend him for his diligence and passion. During the interview, it became clear why he had been selected as the very first recipient of the new award. In his fervent enthusiasm, I could manifestly discern his heartfelt love

for the company and his coworkers, as well as his dedication to the healthy and happiness of our customers.

The second star I talked with was Jeonghee Kim. He attributed the happy outcome to the taste and care of his wife, saying all he did to receive the award for “Best Dresser” was to put on whatever she laid out for him. Expressing his profound gratitude and love, he thanked her for scouring the markets to find the most becoming and sophisticated clothes and for never complaining even though he put her through many hardships.

The interviews impressed me deeply. I could see how even the smallest of Naturetech’s ideas delighted and cheered its employees.

Naturetech begins its search to find the dynamic force for change in small, seemingly trivial things. The sports festival in April, the beer party in May, the pool and hula-hoop competition in July, and now the awards for “Most Praiseworthy” and “Best in Category”—such small events add up to create a fun, happy company that is not only the best in the world, but also the best place to work, where everyone can feel like a part of the family regardless of their position.

Putting such love and joy into practice is what makes Naturetech stand tall and proud as the world’s leading natural botanicals company.

Fellow ECONETians, I invite you all to join the competition to become the “Most Praiseworthy” and “Best in Category” employees!



내 생애 잊지 못할 사랑의 인턴십



글 인턴사원 서지수

4주간 활동한 내용 및 소감 가슴에 다른 무엇도 아닌 '사랑'이 꽂찬 느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억이 아스라히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또렷이 살아나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것만 보아도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ECONET & Univera란 회사에 대한 소감 이보다 더 자상하고, 인간적일 수는 없다! 너무도 '정겨운 회사, 사랑이 넘치는 회사' 랄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 Mariners 야구경기 보러 간 일 (야구를 심심풀이 땅콩만도 못하게 여기던 내가 야구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막 farewell ceremony를 마치고 오는 길이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직원들의 손 글씨가 담긴 인증서를 선물로 받았다. 4주 동안의 짧지만 내겐 너무나 소중한 인턴 십이 이렇게 막을 내리려 한다.

글을 쓰려니까 여기서 만들었던 모든 추억들의 장면들 하나하나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10 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도착한 Sea-Tac 공항에서 난생 처음으로 limo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내내 앞으로 펼쳐질 눈부신 축복의 향연을 모른 채 그저 좋아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렸던 일, Rich라는 EVP의 집에 초대받아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조이 & 로이스) babysitting을 하면 안 되겠냐고 자못 진지하게 물어봤던 일, 야구 경기장을 가본 것은 연고전 때 친구들에 끼어서 본 것이 전부였고, 하물며 TV 야구 중계조차 지루하다며 보지 않았던 내가 메이저리그 경기이니 설렘 법도 하지만, 관심도 없고 경기도 볼 줄 모르기에 함성을 외치기는 했지만 속으론 피~라고 했던, 그러나 결국, 한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젖어 같이 환호하고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내내 경기규칙을 물어본다며 오빠들을 은근히 괴롭혔던 일, 그리고 너무도 맛있었던 bratwurst라는 핫도그, 또 9회 첫 타자의 홈런으로 동점상황에서의 극적인 승리를 목도하여 함께했던 tara, K.C., 인턴들과 폴짝 뛰며 기뻐했던 일, Carman, 그리고 다른 인턴들과 함께 mountain Rainier 투어를 위해 하루 휴가까지 내고 조금은 쌀쌀한 산 중턱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맛있게 나누어 먹었던 일, 그리고 한 달 내내 우리를 돌봐주셨던 자상한 엄마, Barb fulton과 단둘이 쇼핑을 가서 특유의 구매스타일(?) 때문에 2시간이 넘는 쇼핑을 하여 barb가 내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선물을 고르는 데 2시간이 걸리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봤다'고 하여 너무 미안했던 일, 그리고 방금 전에 마친 눈시울이 붉어지던 farewell ceremony까지 모두모두…….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과 그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과 함께 만든 추억들과 기억의 파편들을 말이다. 정말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사는 동안엔 절대, 말이다.



이렇게 univera는 여태껏 7년이란 세월동안 내 건강을 지켜준 제품들을 만들어준 기업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차마 다 열거할 수조차 없는 기쁨의 순간들을,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해 준 참으로 고마운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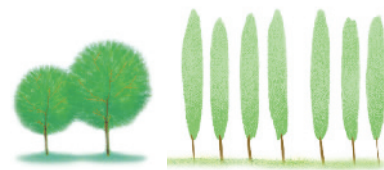
문득 seattle tour를 가서 잠시 뵈었던 고등학교 선배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난다. 졸업 후 1년이 넘도록 뵈지 못하다가 우연히 인턴근무를 하러 온 며칠 후 연락이 됐는데, 마침 선배님도 seattle 부근 expedia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다.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풀어놓았고, 단연 서로의 회사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배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런 말을 했다.

“참 정겨운 회사구나. 그런 회사는 흔치 않다. 아니, 보기 드물 겠? 정말 부럽다! 물론 인턴이면 회사에서 이벤트를 마련해주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네가 지금 온 tour나 집으로의 식사초대라든가 rock climbing, kayaking, 등등 일 외적인 부분까지 그토록 신경써주기는 쉽지 않다. 다들 사업으로 바쁠 것이고, 우리 결국 일개 인턴에 불과하니까 말아야.”

정말이지 학생의 신분으로 인턴을 하게 된 것만도 감사한 데 이렇게 인상 깊은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해주신 점과 그것을 위해 쏟아부으신 정성과 사랑이 너무도 감사해서 잊지 못할 뜨거운 기억으로 내 머리와 가슴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제목처럼, 너무도 인상 깊었던, 내 생애 잊지 못할 사랑의 인턴십. 이 모든 걸 가능케 해주신 한 번도 뵈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유니베라 기업을 설립하신 이병훈 사장님, 출국을 앞두고 맘껏 포식하라며 멕시칸 레스토랑에 데려가 주시고 가는 길 오는 길 내내 당신의 기업 철학은 물론 2년 만에 20kg 감량이라는 신화를 일궈낸 건강 다이어트 비법을 힘주어 가르쳐주신 성한영 사장님, 부족한 일개 인턴을 거두어서 한국인으로서 외국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신 Greg 차장님, 우리 인턴들을 위해 밥솥까지 구해주는 정성을 보여줬던, 친인니와도 같이 힘들 때든 기쁠 때든 문 두드리면 반갑게 맞아주고 감싸 안아줬던 우리 Jenni 언니, 당당한 기상으로 그리고 그 stylish함으로 career woman 이란 그런 거다 라는 걸 몸소 알려주셨던 Sean 등등 여기에 열거하지 못한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고백하고 싶다.

정말, 정말, 유니베라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건 축복이었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유니베라!!!



An Internship Filled with Love - I'll Never Forget It As Long As I Live



By Andria Suh, Intern

Activities and impressions of a 4-week internship My heart feels full of nothing less than “love” itself. There is no doubt about it - the memory of those four weeks just becomes clearer with time, rather than fading away.

Thoughts on ECONET and Univera No group of people could be more considerate and compassionate. ECONET and Univera are companies “overflowing with love and affection.”

Most memorable experience Going to see a Mariners game (I used to consider baseball about as exciting as watching paint dry, but now I'm an enthusiast!)





I’ve just come from attending the farewell ceremony. I was pleasantly surprised to receive a certificate of completion handwritten by the kind people at Univera. Four weeks might be a brief period of time, but this internship has been so near and dear to my heart.

Sitting down to write, each and every memory from the past weeks flashes by before my eyes: first arriving at the Seattle-Tacoma airport after more than 10 years on a plane and getting on a limo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humming in excitement all through the drive to my lodgings without any idea of the amazingly blessed days about to unfold, being invited to dinner at the home of an EVP named Rich and seriously asking if I could baby-sit his adorable children Joey and Lois... The most unexpected of all was the Mariners game. I’d been to a baseball game only once in my life; I’d never even watched baseball on TV because I considered it boring. The thought of going to a Major League match might have excited most people, but, with no

interest and even less knowledge of the game, the most I could manage at the announcement of the trip was a feigned cheer. Once at the ball park, however, I found myself completely swept away by the thrilling atmosphere, rooting with everyone and pestering the male members of our group with questions about the rules. I whooped and jumped up and down with Tara, K.C., and the other interns when the Mariners came back to achieve a victory after the opposing team had tied the score at the top of the ninth with a homer by the lead-off batter. And nothing could have been more delicious than the “bratwurst” I was introduced to that day. Other unforgettable memories include the time we took a day off to go to Mount Rainier and ate fried chicken together on the brisk mountainside, and going shopping with Barb Fulton, our wonderful “mother” who took care of us during that entire month, when my peculiarly meticulous shopping style resulted in our wandering around the mall for over two hours, to Barb’s amazement and my chagrin. Every last memory, down to the tearful



farewell ceremony that just ended, stands out vividly in my mind’s eye.

How could I forget any of it? The people I spent time with at Univera, the conversations we had, and the memories we made together... I will always treasure everything, for as long as I live.

Univera has not only provided the products that have kept me healthy over the past seven years, but it has also allowed me to create more memories of love and joy than I can possibly list here. For that, I am deeply grateful.

I’m suddenly reminded of what a high school alumna of mine, whom I saw briefly on my tour of Seattle, said to me. I hadn’t seen her in over a year since graduation, but we managed to get back in touch a few days after I began my internship. As it happened, she too had been serving an internship near Seattle, at Expedia.

We indulged in a steady stream of conversation about various topics from the moment we got together; stories about our respective companies were certainly no exception. After listening to my account, she said, “What a warm and friendly company! That’s a very rare thing. In fact, such companies are one in a million. Of course, all companies try to prepare various events for their interns, but it’s not easy for them to pay attention to matters outside of work, like the dinner invitation and recreational activities you describe. Everyone’s busy with their own jobs, and we’re only interns, after all.”

I’m so grateful just to have been accepted to the internship program, and the thought of the extra care and love that must have gone into providing su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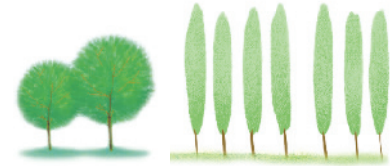
memorable experiences leaves me utterly overwhelmed with thankfulness. These warm memories will stay in my mind and heart for always.

As I emphasized in the title, this internship was filled with so much love that I could never forget it till the end of my day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d like to thank the following people: Chairman Bill Lee, who founded the company that made all of this possible; Mr. Hanyeong Seong, who took us out to a sumptuous Mexican dinner and imparted to us both his business philosophy and legendary dieting method on the ride there and back; Mr. Greg, who told us many invaluable things that made us ponder what it meant for a Korean to work at a foreign company; Jenni, who even got a rice cooker just for us interns, and who always welcomed us when we knocked on her door and took care of us like a real sister; Sean, who, with her unique style, taught us by example what a real career woman ought to be... There are more people than I can mention here, but I owe each of them so much. I’d like to tell every last one of them that it was a true blessing to be able to work with them at Univera.

I love you all, and I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Univera forever!



생명의 릴레이 경주



몸은 힘들었지만 암 환자들이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 우리의 고통과 피곤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우리는 힘을 냈다.

글 안드레아 톨몬, 연구원, 고객관리팀, 유니베라 미국

어느 날, 책상 앞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나에게 이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시작될 나의 모험의 시작이었다. 이메일은 “2007 생명의 릴레이 경주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고, 나는 그 즉시 답장을 썼다.



▲ Camped out at the Relay for Life



▲ Where theres a Hope, Theres a Cure

생명의 릴레이 경주는 암을 이겨낸 사람들을 축하하는 동시에 미국 암 협회의 연구 및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진행되는 밤샘 행사로 행사동안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 트랙을 걷거나 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팀원은 개별적으로 목표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데 우리 팀 목표액은 3천 달러였다. 우리 팀은 기금 모금을 위해 세차를 택했다.

하루 종일 힘은 들었지만 저녁이 되자 자그마치 600달러를 모을 수 있었다.

우리의 용감한 Melissa Story는 팀 리더로서 우리 모두의 사기를 북돋워주었다.

‘24시간 동안의 희망의 불꽃’이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그 뒤를 이어 보이스카웃의 기수가 서바이버 걷기의 빛을 밝혀주었는데, 이는 암을 극복한 모든 이들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였다.

그 뒤로 간병인 걷기가 이어지고 뒤이어 암 생존자들을 위한 리셉션 행사가 이어졌다.

자정에는 특별 행사가 있었는데, 암으로 삶을 마감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참가자들이 종이 초롱들을 가져왔다. 종이 초롱들은 참가자들이 암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장식한 흰색 종이 가방인데 자정이 되면 안에 놓은 작은 초에 불이 켜지고 종이에 쓰인 사람들의 이름을 읽는 것으로 진행되는 가슴 뭉클한 행사였다.

팀내 누군가는 항상 트랙 위를 돌아야 하므로 우리는 교대로 걷거나 뛰기를 반복했다. 트랙 위를 돌지 않을 때는 다른 재밌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나는 텐트를 치고 나의 두 아이들 Bertram과 Johari와 함께 밤새 캠핑을 했다. Julie Garrison은 딸 Mckayla를 데려와 걷기에 동참했다. 유니베라 가족 모두가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걷고 또 걸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암 환자들이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 우리의 고통과 피곤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우리는 힘을 냈다.

‘생명의 릴레이 경주’는 매우 멋진 경험이었으며 행사가 끝났을 때, 우리 유니베라 팀은 무려 1750달러를 모을 수 있었다.



Relay for Life



We were tired but elated, knowing that the pain and fatigue we were feeling was nothing compared to what the survivors had gone through.

By Andrea Tillmon, Customer Care, Univera USA

One day, while I was sitting at my desk, minding my own business, I received an email. This email was only the beginning of the adventure to come. “Email me back if you’r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the 2007 Relay for Life”, the email said. I quickly replied.



▲ Preparing to walk for the Relay for Life

Relay For Life is a fun-filled overnight event designed to celebrate survivorship and raise money for research and programs of the American Cancer Society. During the event, teams of people take turns walking or running laps around a track. Each team member could have their own personal fund raising goals, and our team had a corporate goal of \$3,000.00. We held a carwash to help us reach our goal. It was a lot of work, but by the end of the afternoon, we had raised \$600!

Our fearless leader, Melissa Story, had us all in high spirits. The ceremony began with the 24 Hour Flame of Hope. Next, the Boy Scouts’ Color Guard led the way for the Survivors Lap. This was to celebrate all those who had survived cancer. This was followed by the caregiver lap. After that, they had a reception for the survivors of cancer. At midnight, there was a special ceremony. People brought Luminaria in remembrance of people who had died from cancer. Luminarias start out as white paper bags that people decorate with the names of lost loved ones. At midnight, the tealights placed inside these bags were lit and in a very moving ceremony the names of the people on the bags were read.

Since someone from our team needed to be on the track at all times, we walked/ran in shifts. I set up a tent and camped out at the event overnight with two of my children, Bertram and Johari. Julie Garrison brought her daughter, Mckayla, who also walked for our team. People from all departments of Univera walked all night and into the next morning. We were tired but elated, knowing that the pain and fatigue we were feeling was nothing compared to what the survivors had gone through.

There were many fun things to do at the event when we weren’t on the track. It was a great experience and our Univera team raised a total of \$1750.



L'initié Age Defying

피부의 시간을 되돌리는 신비의 공간,

L'initié Age Defying

글 박정아 기자, 고객지원팀, 유니베라 한국

유니베라의 화장품 브랜드인 리니시에의 스페셜 케어라인으로 출시된 안티에이징 제품인 에이지 디파잉 라인인 내적, 외적 피부 노화의 원인에 직접 작용하는 천연기능성 약용 식물과 유니베라의 하이 테크놀로지로 피부 위에 자리잡은 주름을 해결하고 피부 속에서 일어나는 노화의 징후를 사전 예방하며 세포의 신진대사를 정상화하여 피부의 기능을 재생시켜준다.

주름없이 탱탱하고 탄력있는 피부는 모든 여성의 로망!

요즘은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피부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추세이다. 눈에 띄는 주름이 생성되는 20대 초반(약 25세 전후)부터 꼭 필요한 아이템이 될 에이지 디파잉 라인은 세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능성화장품 인정)



• 주름을 개선하고 노화된 피부 속을 균형있게 채워주는 에이지 디파잉 인텐티브 에센스 (50ml 12만원)



• 노화가 빨리 찾아드는 눈가를 탄력있고 환하게 개선시켜주는 에이지 디파잉 아이 에센스 (15ml 8만원)



• 노화된 피부의 재생을 도와 피부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주는 에이지 디파잉 리페어 크림 (50ml 16만원)

(주)엘리드 피부과학 연구소의 임상결과에 의하면, 아이 에센스를 4주간 사용 후 눈 밑이 부풀어 오르듯 보이는 아이백 부피가 21% 감소하였고, 3개월간 에이지 디파잉 라인을 사용 후 주름 깊이가 15% 개선되었다고 한다. 아침, 저녁 피부관리를 하면서 빠뜨리지 말고 꼼꼼하게 피부에 잘 스며들게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한층 젊어질 줄 있는 리니시에 에이지 디파잉..!

고급스런 용기에 담긴 안티에이징 성분들이 피부에 남겨진 세월의 흔적을 없애준다.

피부 깊숙이 채우고, 막아주고, 되찾아 줍니다.

복합적인 주름고민, 에이지 디파잉의 세가지 노화해결 [3S][®] 시스템이 그 해답을 드립니다.

• 해결책 1 : 피부 위에 자리잡은 주름 해결 • 해결책 2 : 노화의 원인을 차단하여 노화예방 • 해결책 3 : 세포재생을 통한 피부 기능 강화



L'initié Age Defying

The mystic cosmetic which turns back time

L'initié Age Defying

By Jeongah Park, CS Team Manager, Univera Korea

Univera's Age Defying Line which is a cosmetic brand of Univera's L'initié Speical Care Line solves wrinkles with its natural plant ingredient and high technology. It stops aging and revitalizes skin by improving metabolism of the cells.

To have wrinkle-free and resilient skin is every woman's dream!

Nowadays men also seek for beautiful skin. The Age Defying Line which is composed of 3 products is a must for people in their 20s when wrinkles begin to take place.

(Approved by KF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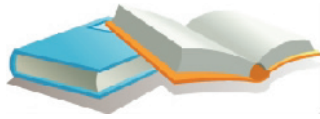
- Age Defying Intensive Essence helps remove wrinkles and revitalizes aging skin. (50 ml 120,000 Won)
- Age Defying Eye Essence helps you gain resilience around the eyes. (15 ml 80,000 Won)
- Age Defying Repair Cream helps revitalize skin. (50ml 160,000 Won)

Clinical studies by Ellead Skin Research Center show a decrease of 21% in the size of eye bags after using Eye Essence for 4 weeks and a 15% improvement in the depth of wrinkles after using Age Defying Line for 3 months. Just applying Linitie Age Defying in the morning and at night will help you become younger!

The anti-aging ingredients will remove the traces of time.

Age Defying's 3S² system will help revitalize and stop aging of the skin and provide you with 3 solutions.

- Solution 1 : Remove wrinkles
- Solution 2 : Stop aging of the skin
- Solution 3 : Revitalize skin through restoration of cells



성공한 기업들의 비밀

‘Built to Last’를 읽고 나서

그런 핵심이념을 가지고 있는 회사 직원들은 같은 꿈을 공유하며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단결한다. 회사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만족하며 일을 하는 것이다.

Built to Last

글 제임스, 알로콰 중국

비전 기업은 그들의 세계적인 명성과 위상 또는 우수한 제품의 공급과 서비스 때문이 아니라 그 회사의 조직 또는 운영방식 때문에 그런 것이다. 먼저 언급한 것은 회사의 자연적인 부산물이지만, 후자는 꿈이 있는 조직을 만들고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세계에서 끝없는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자극이다.

회사가 어떻게 하면 꿈이 있는 곳이 될 수 있을까? 꿈이 있는 회사는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있다. 하나는 핵심가치와 핵심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의 핵심이념이고, 다른 하나는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저버리면서도 핵심이념에 반하지 않으며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핵심이념은 투자수익이나 회사 크기보다 더 중요하고 정신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회사와 직원들의 길잡이가 되며 직원들이 그들의 조직에 헌신할 수 있게끔 매력적이고 희망적이며 역동적이어야 한다. 그런 핵심이념을 가지고 있는 회사 직원들은 같은 꿈을 공유하며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단결한다. 회사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만족하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회사 직원들은 완벽하거나 최고가 되기 위한 생각보다는 스스로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핵심이념만으로는 꿈이 있는 회사가 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핵심이념을 완벽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조직과 회사 목표, 전략, 전술, 정책, 절차, 회사문화, 행정 및 사업 운영에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핵심이념을 회사의 일상이 되도록 전환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핵심이념에 반하는 것들은 중단되어야 한다. 동시에 개혁과 혁신 그리고 도전을 통해서 발전을 가져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각 부서와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오늘보다 내일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이 질문을 미래 행동의 지침서로 삼고 생활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야 한다.

회사가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사항을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여러 종류의 수많은 변화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는 성공적인 회사가 될 것이다.



Thoughts after reading the work of *Built to Last*

The Secret of Successful Companies

In companies with such core ideas, people share the same dream, they think and act in the same way and they are a unity. They work more for themselves rather than for the company and they work happily and contentedly

By James, Aloecorp China

A visionary company is not visionary for its world-wide reputation, status of world leadership or supply of top-quality products or service, but for the company's way of organization or its mechanism of operation. The former is a natural by-product of the company. Whereas, the latter is the utmost profound motivation which makes the organization a visionary one and gain success after success in no end in a dynamic and uncertain world.

Built to Last

How can companies make themselves visionary? The answer lies in that such companies cling to two things permanently. One is the core ideas of the organization which consists of core values and core mission. The other is to stimulate progress by reforming and innovating but never go against the core ideas, even for substantial economic benefits.

The core ideas must be something which is spiritual and far high above investment returns or company size. It is the guiding star for the company and its staff, it must be drawing, encouraging, exciting and making people devote themselves to their organization. In companies with such core ideas, people share the same dream, they think and act in the same way and they are a unity. They work more for themselves rather than for the company and they work happily and contentedly. In such a company, people never have the concept of being perfect or best but being better and they'll continue to work for a better or ever better tomorrow.

But only with core ideas won't carry a company far. More important is to implement the core ideas fully and consistently and blend them with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company goals, strategies, tactics, policies, procedures, corporate culture, administrative and business conducts perfectly. In a word, to convert the core ideas into the company's everyday conducts. Anything goes against the core ideas shall be called off. Meanwhile, set up a system to stimulate progress by reforming, innovating and challenging. Each staff or department should everyday ask themselves the question "How shall we do better tomorrow than we have done today?" and take this question as a guideline for their future actions and make it their way of life.

If a company can achieve the abovesaid two points and keep on doing so continuously, it will surely sustain all kinds of critical changes and uncertainties and be a more and more successful one in a long long run .

와인이 어렵다면, 포도 품종을 따라가 보세요.

글 이재형, 와인 컨설턴트, (주)이음 에프엔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와인은 어느 나라에서 생산할까요?

‘와인’ 하면 떠오르는 나라, 프랑스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칠레산 와인, 특히 까베르네 꼬비농 포도품종이 가장 많이 팔립니다. 이 까베르네 꼬비농이라는 품종은 프랑스가 원산지이지만, 칠레에서도 만만치 않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한 두 나라, 즉, 프랑스는 구세계 와인의 대표이고 칠레는 신세계 와인의 대표입니다.

구세계 와인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지방에서 생산되는 와인, 즉,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그리스, 동유럽, 북아프리카 등의 와인들입니다. 이 지역의 와인들은 역사가 길게는 6000년 이상, 짧게는 2000년이 약간 안됩니다. 물론 수천 년 전에 제조하던 와인의 스타일과 현재 생산되는 구세계 와인은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구세계 와인생산국가들의 특징은 국가마다 대표할만한 와인생산용 포도품종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탈리아는 네비올로와 산지오베제, 프랑스는 까베르네 꼬비농과 메를로, 샤르도네, 스페인은 펠쁘라니요, 독일은 리즐링과 게뮬러트트라미너 등입니다.

이렇게 각 나라가 다르게 주력으로 생산하는 포도품종이 원래부터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수백 년, 또는 수천 년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각 나라에서 자기네 토양에 맞는 포도품종을 찾다보니 이토록 다양한 포도품종을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와인을 따라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마치 마법의 양탄자를 탄듯 세계 여행을 즐기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신세계 와인은 그 외 지역, 즉, 칠레, 아르헨티나, 미국, 남아프리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생산되는 와인입니다. 신세계 와인은 200년 이하의 역사를 지녔습니다. 신세계 와인의 특징은 유럽에서 이미 검증된 포도종류를 재배, 사용하여 와인을 제조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칠레는 까르르네르나 까베르네 꼬비농, 아르헨티나는 말베크, 미국은 까베르네 꼬비농,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피노따쥐(피노누와와 썬쏘의 교배종), 뉴질랜드는 꼬비농 블랑, 오스트레일리아는 쉬라즈 등을 대표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품종들은 이미 유럽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신대륙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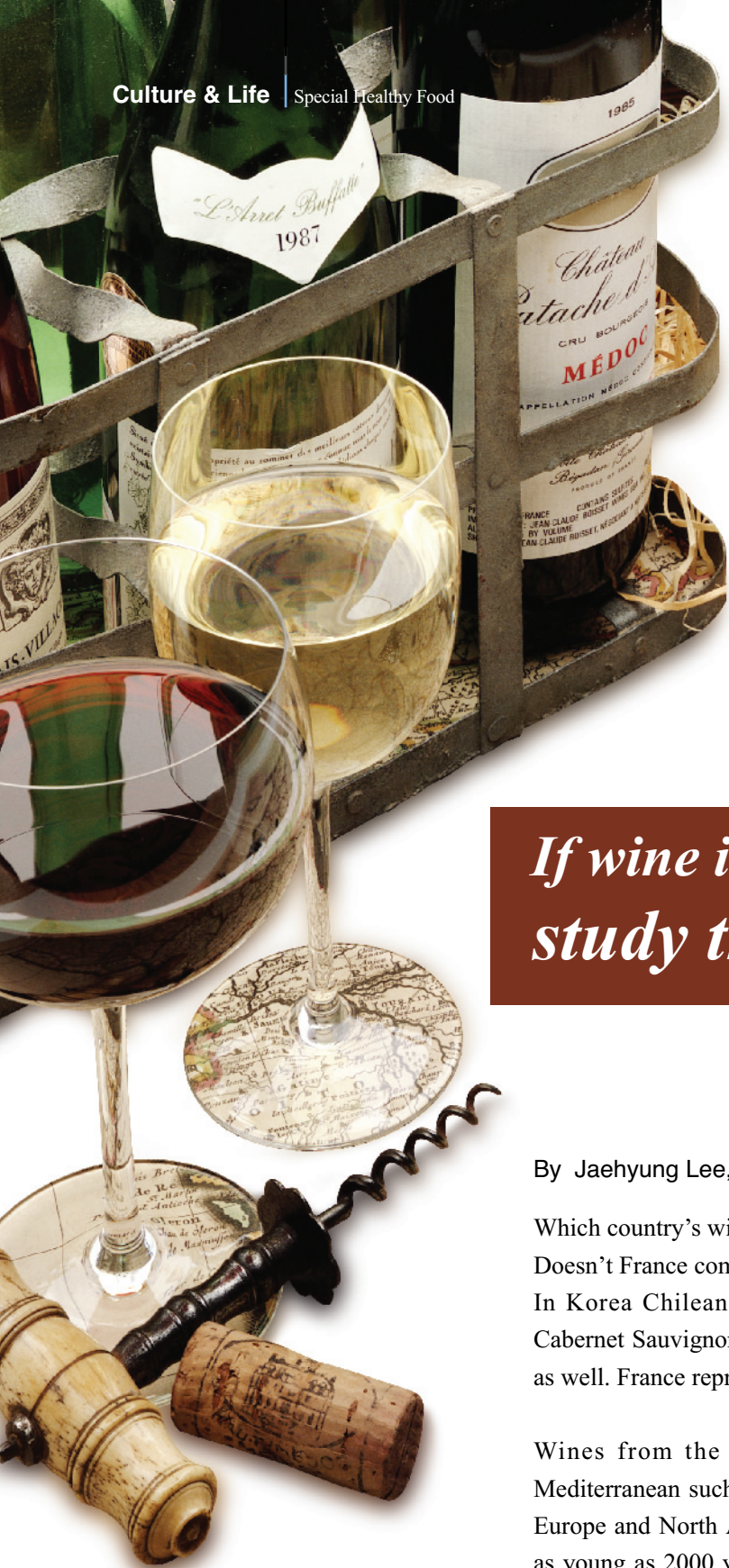
위에 열거한 국가별 포도품종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와인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제가 열거한 국가별 포도품종으로 만든 대표적인 와인부터 시작해 보세요.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칠레의 까베르네 꼬비농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쉬라즈처럼 진하고 무거운 맛부터 시작해서도 좋고,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뉴질랜드의 꼬비농 블랑처럼 꽃향기 맡으며 상쾌하게 시작해서도 좋습니다.

어느덧 와인을 따라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마치 마법의 양탄자를 탄듯 세계여행을 즐기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eum



If wine is difficult study the types of grapes.

By Jaehyung Lee, Wine Consultant, Eum F&B

Which country's wine is the most popular in Korea?

Doesn't France come to mind when one talks about wine? Not always.

In Korea Chilean wine especially Cabernet Sauvignon is sold the most. Cabernet Sauvignon comes from France but it is garnering much fame in Chile as well. France represents the old world wine and Chile the new world wine.

Wines from the old world are from European countries around the Mediterranean such as France, Italy, Spain, Germany, UK, Greece and Eastern Europe and North Africa. Wines from these areas are as old as 6000 years and as young as 2000 years. Of course the way wines were produced thousands of years ago are different from that of nowadays. However each old world wine producing country has their own kind of grapes to produce wine.

Tasting wine from different countries will give you a chance to go on a trip around the world.



Italy's Nebbiolo and Sangiovese, France's Cabernet Sauvignon, Merlot, Chardonnay, Spain's Tempranillo, Germany's Riesling and Gewurztraminer. Each country didn't start out with a special type of grape. After hundreds and thousands of years each country found the type of grape which fit their soil.

New world wines are from other areas like Chile, Argentina, US, South Africa, New Zealand and Australia. Wines from the new world have a history less than 200 years. A special feature of new world wines is that it is made from grapes which have been already been recognized in Europe.

Chile's Carmener, Cabernet, Sauvignon, Argentina's Malbec, US' Cabernet, Sauvignon, South Africa's Pinotage, New Zealand's Sauvignon Blanc, Australia's Shiraz. These kinds of wine have already gone through tests in Europe so they spread quickly in the new continent.

The above mentioned grapes by country are the most basic. If you want to know about wine begin tasting the ones mentioned above. You can begin with Chile's Cabernet Sauvignon or Australia's Shiraz which have a thick and heavy taste enjoyed by Korean men or New Zealand's Sauvignon Blanc which has the scent of flowers and is enjoyed by Korean women.

Tasting wine from different countries will give you a chance to go on a trip around the world.

eum



에코넷 한국 홀딩스 / ECONET Korea Holdings

1 에코넷 한국 전직원 BSC



에코넷 한국에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BSC 전략수립방법론 교육을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31일 에코넷 한국 홀딩스를 시작으로 유니베라, 유니젠, 네이처텍의 직원들이 본부별로 나뉘어 1박 2일의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체계적인 사고과정을 이해하고, 전략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직원들은 가정 BSC 전략맵 작성 실습을 통해 BSC 전략맵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본부별로 자사의 전략맵을 작성해 보고 본부별로 작성된 전략맵을 함께 모여 통합하고, 통합된 전략맵의 목표들을 연계표 작성을 통해 각 본부별로 캐스캐이딩 하고, 캐스캐이딩 받은 목표와 각 본부의 고유목표를 합쳐 본부별 전략맵 작성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 5~6일 유니베라 영업본부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ECONET Korea Employees Receive BSC



Well-trained personnel are valuable assets in any company, and ECONET Korea is currently been holding BSC Strategy Planning methodology

classes for its entire staff, to survive cutthroat competition that has become the rule in the business world. Beginning with ECONET Korea Holdings on August 31st, employees of Univera, Unigen and NatureTech are receiving a two-day sessions in accordance with above mentioned policy. The content of the sessions focus on educating employees with steps of strategic planning, and causal relationships involved in various strategies. Employees in training start off by drawing up family BSC Strategy Maps, which helped them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the said Map. The exercise required that each division come up with a Strategy Map and then come together to discuss and consolidate the maps. The objectives from the consolidated Strategy Map would cascade to each division through the drawing of interconnecting lines into network map. A comprehensive strategy map for each division was formulated with the objectives that were cascaded down and the objectives of the individual divisions. The education will end with Univera's Operational Division from October 5th to 6th.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2 리니시에 에이지 디파잉 (L'initié Age Defying) 론칭

유니베라 한국은 10월 리니시에 안티에이징 라인인 에이지 디파잉을 출시한다. 피부 노화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응이 가능한 에이지 디파잉 라인은 3단계의 안티에이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노화된 피부 속을 균형있게 채워주고, 주름을 예방해주고 피부 재생을 돕는 인텐시브 에센스, 아이 에센스, 리페어 크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연약용식물과 유니베라의 파이토로직스를 통해 개발된 에이지 디파잉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주름기능성 인증을 받은 상품이다. 이번에 에이지 디파잉으로 안티에이징 라인이 갖추어지면서 유니베라 한국의 리니시에 브랜드는 모든 피부 고민을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되었다.

Launching of L'initié Age Defying

To cheat the process of aging has been one of humankind's most persistent struggle, and Univera Korea will launch Age Defying, a part of its L'initié Age Defying product line this October, to help more people fight the ravages of time. The Age Defying line, which tackles skin aging at a fundamental level, offers a 3-step solution to fight aging of the skin. It is composed of intensive essence, eye essence, and repair cream, for strengthening and revitalizing the skin. Age Defying, which is made of herbs combined with Univera's PhytoLogix process, has gained approval from the KFDA for its wrinkle-reducing capability.

With the anti-aging line thus complete, Univera Korea's L'initié brand is now replete with everything necessary for solving and managing skin trouble anytime, anywhere.

3 유니베라 한국 미국현지법인 방문



8월 14일부터 24일까지, 유니베라 한국 2006년 우수대리점 30개의 사장들과 본사 임직원이 유니베라 미국의 컨벤션 현장과 탐피코 농장을 방문하는 등의 일정으로 미국 현지 법인 연수를 다녀왔다. 유니베라 미국의 컨벤션은 유니베라 한국과 유니베라 미국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번에 참가한 한국 사장님 중 한복을 입은 분이 인기가 좋았다는 후문도 들린다.

탐피코 농장을 방문하기 위해 멕시코로 향했을 당시 허리케인으로 인해 방문을 포기하려고도 했으나, 현지 기상예보를 잘 활용해서 방문자들이 농장을 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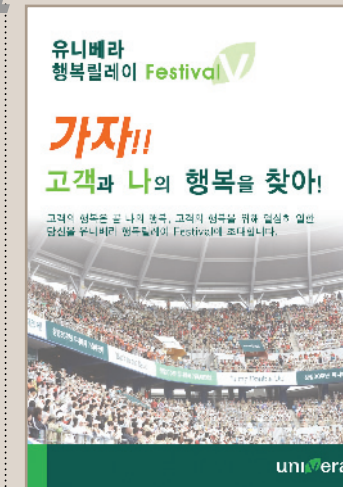
있게 되었다며, 현지에서 도와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Univera Korea's visit to Univera USA

Proprietors of the top 30 agencies of Univera Korea chain, along with the employees of Univera Korea, attended the Univera USA convention and then visited Univera USA farm in Tampico, Mexico, from August 14th to 24th. The participation of the Univera Korea delegation to Univera USA Convention provided an excellent opportunity for mutual exchange between Univera Korea and Univera USA. Though not confirmed, there were rumors that a certain proprietor of a Univera Korea agency became the life of the convention and drew much attention to herself when she was wearing the colorful Hanbok, a traditional Korean dress.

The Univera Korea delegation also thanked those at Univera USA for keeping close tabs on the local weather, and especially the hurricane that was threatening to Mexico, thus allowing the members to visit the Mexican farm which would have been cancelled otherwise.

4 2007 유니베라 행복 릴레이 페스티벌



2007년 10월은 유니베라 행복 릴레이 페스티벌이 전국 11곳에서 열리게 되면서 행복으로 넘치는 한 달이 될 예정이다. '고객과 나의 행복을 위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마련한 이번 행사는 '고객의 행복이 UP 자신의 꿈과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에 맞게 열심히 활동하는 UP를 위한 것이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CAP 프로젝트 연구를 맡고 있는 교수진들의 알로에 및 천연물 유효성에 관한 특강이 마련되어 있어 세계적인 천연물 전문기업인 유니베라의 위상과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복 릴레이 페스티벌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리니시에 에이지 디파잉 제품을 영상물로 소개하고, 교육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Univera Happiness Relay Festival

October of 2007 will be a happy one for Univera and all of the company's customers, as Univera's Happiness Relay Festival will be held at 11 locations around Korea. Held under the motto, "Happiness for the customer and myself", the event was for all UP's who truly believe that a customer's happiness is one's own and work hard to prove the fact.

The event will include a special lecture on the effectiveness of aloe and natural substances will be by the team of professors in charge of the CAP project, which is expected to confirm Univera's stature as the world's premier natural substances producer and the company's future vision. Last but not least, it will be capped off by a video and a class session on the new L'initié Age Defying product line.

5 러시아 현지법인 연수 - 유니베라 우수 지사장



2007년 상반기 우수대리점 19개점의 사장과 유니베라 본사 임직원은 지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러시아 현지법인에서 연수를 가졌다. 러시아 크라스노노 농장 체험과 함께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Outstanding Univera Proprietors Visit Russian subsidiary



Univera Korea always seeks to broaden its horizons, and did so with a visit by proprietors of top 19 Univera agencies in Korea during the first half of 2007 along with executives and staff of Univera Korea headquarter from September 7th to 10th to Univera's Russian subsidiary. The visit also included an up-close look at a Univera farm in Kraskino. All in all, the visit was an excellent finish to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provided a meaningful opportunity to exchange strategies for the second half.

6 "2007년 피터드러커 혁신상"을 수상



지난 9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2007 피터드러커 혁신상'의 시상식에서 유니베라 한국의 마케팅 기획팀이 장려상(사회책임상)을 수상했다. 이번 혁신상은 피터 드러커 교수의 명의를 사용하는 아시아 최초의 상으로 한국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에서 선진 사회를 향한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우수기업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혁신상의 관계자는 유니베라 한국의 마케팅 기획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Serve First" 활동 등 사회봉사활동 부문이 좋은 사례로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Winning the "2007 Peter Drucker Innovation Award"

There is no bigger name in marketing and business management than Peter Drucker, and an honorable mention for Univera Korea in the Peter Drucker Innovation Award ceremony held at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on September 14th for Univera's Marketing & Planning Team and the team's volunteer activities termed "Serve First". The said award is the first in Asia that bears the name of the late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professor, and given out by the Korea Peter Drucker Society to outstanding companies to encourage and expand innovative activities. One of the award officials at the ceremony stated that Univera Korea earned its award for recognition of its 'Serve First' policy as a great example of corporate responsibility to society.

네이처텍 / Naturetech

7 하이난 알로콥 생산설비 및 기술 이전차 네이처텍 방문

지난 8월 28일 한상준 사장을 비롯해 관련 담당자들이 네이처텍에 방문하여 하이난 알로콥 생산이전관련 설비 및 기술 이전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추어 최상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3일동안 설비와 원부자재, 완제품까지의 생산 과정을 논의하였다. 이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하이난 알로콥 생산과장 Mr. Ding과 QC과장 Mr. Wu는 네이처텍의 생산과정을 실습하기 위해 한국에 남아 9월 20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Aloecorp China Visits NatureTech for Production Facility and Technology Transfer

President Jeff Han of Aloecorp China and relevant officials were on the grounds at NatureTech on August 28th, for discussions on the transfer of production equipment and

technology for the Chinese company Hainan Aloecorp. The discussion proceeded for three days with the express goal of providing the best product to consumers in a globally competitive era, officials discussed issues concerning equipment, raw material, subsidiary materials and the production process leading to the final product. The discussion was also attended by production manager Mr. Ding and QC manager Mr. Wu, representing Hainan Aloecorp, who remained in Korea after the conclusion of the discussions to learn and practice the production process of NatureTech, until their eventual return to China on September 20th.

8 APS(Advanced Planning & Sceduling) / POU(Point Of Use) Kick Off 미팅

지난 9월 3일 APS(Advanced Planning & Sceduling : 생산계획) / POU(Point Of Use : 바코드를 이용한 현장 데이터 수집) kick off meeting이 있었다. 생산의 계획, 실행, 분석 업무방식의 혁신을 통한 유연 생산체계의 확립과 원자재 공급, 생산, 제품 재고 경로의 현장 데이터 수집, 처리부문의 POU를 실현하며 관련 정보 시스템에 대한 상호 통합성을 보장하는 정보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적정 재고 운영, 생산계획 대응력, Lot 이력에 대한 추적성, 실시간 실적 처리에 의한 정보의 신속성 및 정확성 향상을 목표를 둔다. APS와 POU는 앞으로 약 6개월동안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발 후, 머지 않아 ASP와 POU를 도입하게 될 네이처텍은 OEM과 ODM 생산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PS(Advanced Planning & Scheduling) / POU(Point Of Use) Kick Off Meeting

Univera Korea held a meeting last September 3rd to kick off its APS(Advanced Planning & Sceduling) / POU(Point Of Use : Using bar codes to collect on site data). The meeting's purpose was to establish a flexible production system through innovation of production planning, execution, and analysis methods; in addition to supply of raw materials, production, collection of on-site information on goods in stock, and

handling of POU. The meeting also discussed the goal of building an information infrastructure that guarantees mutual consolidation of related information systems. It also discussed management of appropriate goods in stock, production planning, tracking of Lot information and promptness and precise provision of information based on real time processing. The above development is expected to take place over a period of 6 months, and the introduction of ASP and POU will likely increase effectiveness of NatureTech's OEM/ODM production.

9 네이처텍 벨트인증식



2006년 Six-Sigma 활동을 한 이후로 3번째 자격 검정을 실시한 네이처텍은 지난 9월 3일월례조회 때 벨트 인증식을 가졌다. 이번 벨트 인증식에서는 품질혁신팀, 생산기술팀, 연구개발팀에서 인재가 배출되었는데, 이로써 현재 네이처텍의 벨트는 BB 2명, GB 10명이 됐다.

BB와 GB로 자격을 인증 받은 인재들은 앞으로 후배들을 양성해 더 많은 네이처텍의 인재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 BB(Black Belt) GB(Green Belt)

NatureTech Belt Certification Ceremony

While the need to certify 'belts' might look like an odd practice to outsiders, but it is serious business in NatureTech's production plants, and the ceremony for belt certification was held after holding the 3rd qualification test since the initiation of the Six-Sigma program in 2006. Outstanding employees came from the quality

innovation, production technology, and research development teams to attend the ceremony to receive their 'belts'. NatureTech thus possesses 2 Black Belts and 10 Green Belts in its ranks, and excellent employees certified with Black Belts and Green Belts will contribute to nurturing and developing even more outstanding employees.

10 건강기능식품 발전을 위한 수요모임(172회) 개최



매주 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건강기능 식품팀이 주최하는 '건강기능식품 발전을 위한 수요 모임'이 지난 9월 5일에는 우리 네이처텍에서 있었다. 건강기능식품 업계로는 최초로 Six-Sigma 노동부 인증을 받은 네이처텍의 사례를 듣기 위해 식약청 직원들과 건강기능 식품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회사를 방문한 것인데, 총 15명이 참석하여 4시간 동안, 6-sigma 실행사례를 듣고 현장을 견학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172nd Wednesday Meeting for Natural & Health Food Development



NatureTech became the site of Wednesday Meeting on Natural & Health Food Development hosted by KFDA's Natural & Health Foods Team on September 5th. The KFDA delegation visited

NatureTech for an update on our success in becoming the first food company to receive the Ministry of Labor's Six-Sigma certification, along with other important persons from the Natural & health food industry. A total of 15 people came and listened as NatureTech proudly stated cases examples of Six-Sigma at work, and the group was given a tour of NatureTech facilities afterwards.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11 중국 강소성 단양시 인민정부 경제시찰단 방문



지난 8월 23일, 중국 강소성 단양시 인민정부 당위원회 이모천(李茂川) 당서기를 비롯한 20여명의 경제사찰단이 유니젠을 방문하였다. 단양시 경제시찰단은 유니젠의 천연물 사업 모델과 연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당사 연구시설을 견학하였다. 이번 방문은 올 봄 1차 방문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지난 번 방문 때보다 시찰단의 규모가 커져 유니젠의 천연물 사업에 대한 중국 단양시 인민정부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유니젠 한국은 단양시와 천연물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유대관계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Economic Observation Group from China

On Thursday August 23rd, a delegation from Danyang City in China's Jiangsu Province including the secretary of People's Government Party Council Li Maochuan, and 20 some members of the Economic Observation made an official visit to Unigen. The Economic

Observation Group sat down for a briefing on the company's natural substance business model and ongoing research activities and also made a tour of Unigen's research facilities.

This visit was larger than first visit that took place this spring, which revealed high interest in the company's natural substance business by the Danyang People's Government. After the visit, the Chinese delegation and Unigen representatives agreed to keep a close relationship with Danyang regarding the natural substances bus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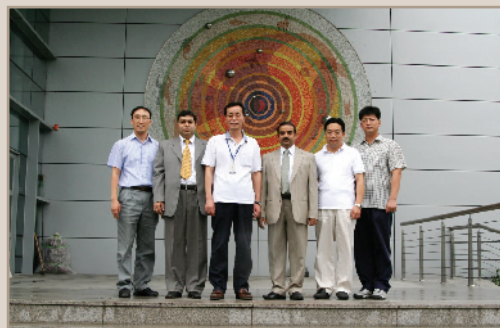
12 인도 원료공급사 인도월드(IndoWorld)社 실무자 방문



지난 8월 30일, 유니젠 한국에 아카시아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인도 원료공급사 인도월드(IndoWorld)社의 실무자인 Mr. Raj Katyal과 Mr. Anil Katyal이 당사를 방문하여 두 회사간의 사업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인도월드는 당사의 천연물 사업모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증대하여 양사의 공동발전에 기여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인도월드가 실무자들은 오전에 유니젠 방문을 마친 후, 오후에는 서울 에코넷 센터를 방문하였다.

Visit by Staff of IndoWorld which Provide Raw Materials

Mr. Ray Katyal and Mr. Anil Katyal from IndoWorld, the provider of acacia for Unigen Korea, visited our company offices last August 30th and discussed business operations between the two companies. The visit helped IndoWorld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Unigen's natural substance business model, and the two companies agreed to expand cooperation and contribute to mutual development. IndoWorld staff would follow up their visit to Unigen with a visit to Seoul's Econet center in the afternoon.

에코넷 미국 홀딩스 / ECONET USA Holdings

13 2007 에코넷 미국 야유회



지난 7월 28일 토요일 에코넷 USA의 야유회가 레이시 본사에서 남쪽으로 약 50분 거리에 있는 워싱턴 매트락의 트루먼 글릭 파크에서 열렸다. 트루먼 글릭 파크는 나무와 오솔길, 데커 크릭의 물소리가 들려오는 한적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피크닉에는 덩크 탱크, 장애물 코스, 22피트 미끄럼, 미니 농구 게임, 말발굽 놀이, 발리볼, 페이스 페인팅 및 에어브러싱, 카니발 게임 등 다양한 놀거리가 제공되었다. 야유회가 끝날 무렵, 상품 추첨에서는 상품권, DVD 플레이어, 카메라가 제공되었다.

이번 야유회를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애를 써준 야유회 조직 위원회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7 ECONET USA Company Picnic



On Saturday, July 28th, the 2007 ECONET USA Company Picnic was held at Truman Glick Park in Matlock, WA, about 50 minutes south of the Lacey Headquarters. The park is in a secluded, yet peaceful location surrounded by trees, nature trails, and the trickling sounds of Decker Creek. The picnic included many fun activities like the dunk tank, the inflatable mega obstacle course and giant 22' slide, mini basketball hoop shoot challenge, horse shoes, volleyball, face painting, airbrushing, and carnival games. Towards the end of the picnic, names were drawn for the raffle giveaway which included gift certificates, a portable DVD player, and a camera.

A very special THANK YOU goes out to our "Picnic Committee" for their time, efforts, and hard work.

14 Derek Hall사장, 7월 14일 바베큐 파티를 마지막으로 은퇴하다



지난 7월 14일, Derek Hall (부회장겸 CEO, 에코넷 미국)과 그의 아내 Shelby Hall은 에코넷 가족을 위한 피크닉을 마련해 맛있는 음식과 신나는 음악, 조랑

말 타기 등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 피크닉에 참석한 직원들은 그 동안 에코넷의 발전에 기여한 Derek Hall 사장의 공로를 축하하고, 7월 31일로 예정된 그의 은퇴를 기념하는 선물과 케익을 함께 즐겼다. 그는 앞으로 가족과, 특히 17명의 손자, 손녀들과 함께 보낼 시간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비록 앞으로 사무실에서 자주 볼 수는 없겠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 남아 에코넷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데렉 사장님!"

한편, Derek Hall 사장의 뒤를 이어 에코넷에 이미 오랫동안 기여해 온, 유니베라 미국의 현 사장 Stuart Ochiltree가 8월 1일부터 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Derek Hall Retires at BBQ Party on Saturday July 14th



Food, music and pony rides... fun was had by all at the recent family picnic hosted by Derek (Vice Chairman and CEO, ECONET USA Holdings) and his wife, Shelby Hall. The day included a celebration of Derek's many contributions to ECONET's growth as well as gifts and cake to mark his upcoming retirement on July 31st. He is looking forward to spending more time with his family, especially his 17 grandchildren. Even though we won't see him around the office as often, he will still remain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stay close to ECONET.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did, Derek!

Stuart Ochiltree, a long-time asset to ECONET

and current CEO of Univera USA, will assume the position of CEO for ECONET USA Holdings beginning August 1st.

유니젠 미국 / Unigen USA

15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에서 당뇨 치료를 위한 알로에 성분의 임상 시험 진행

유니젠 미국은 당뇨 치료를 위한 독특한 알로에 성분의 스크린 및 임상전 실험 과정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사용 특허를 신청했으며 당뇨병 전증 단계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에 들어갔다. 당뇨 치료를 위한 알로에 성분은, 2005년에 지방세포로부터의 지방 분비를 촉진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3000가지가 넘는 식물의 성분 추출 과정을 거친 후 발견된 것이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은 캘리포니아의 데이비스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에서 진행 중이며 오는 2007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Aloe based formulation for diabetes under human clinical test at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Unigen USA has completed screening and pre-clinical development of a unique aloe based formula, filed a usage patent, and moved it into human clinical trial phase involving pre-diabetic subjects. The novel aloe composition was discovered in 2005 after screening more than 3000 plant extracts for promotion of adiponectin secretion from Adipocytes. A human clinical trial of this composition is being conducted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with completion scheduled for the end of 2007.

16 유니베스틴의 작용기전 약용식품(Journal of Medicinal Food)저널에 게재

유니베스틴의 소염 효과에 대한 생화학 연구가 한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염증 억제를 위한 사이클로옥시지나제와 5-리폭시지나제 이중 억제제로서의 황금과 아카시아 카터큐 껍질 추출물" 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2007년 약용식품 저널(Journal of Medicinal Food) 제 10권, 제 3호의 442-451페이지에 걸쳐 소개되었다. 이 생화학 연구는 유니젠 미국에서 처음 진

행되 었으며 유니젠 미국의 파트너사인 Primus Pharmaceuticals, Inc에 의해 확인받은 바 있다. 이로써 유니베스틴의 작용기전이 검증되었으며 유니베스틴을 만성 전신 염증 질환 관리에 사용해도 매우 안전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Mechanism of action of Univestin has been published in a peer-review magazine: Journal of Medicinal Food.

In what could be a landmark achievement, biochemical studies of Univestin for its anti-inflammatory properties have been accepted by a peer-reviewed journal for publication. The article entitled:” A Medicinal Extract of Scutellaria Baicalensis and Acacia Catechu Acts as a Dual Inhibitor of Cyclooxygenase and 5-Lipoxygenase to Reduce Inflammation” has been published in the Journal of Medicinal Food, 2007, Volume 10, issue 3, occupying pages 442 to 451. The original biochemistry research was conducted at Unigen USA and further confirmed by Unigen USA’s business partner - Primus Pharmaceuticals, Inc. This publication confirmed the mechanism of action of Univestin and offers additional scientific evidence for the safe usage of Univestin in management of chronic systemic inflammatory conditions.

17 유니젠 한국과 유니젠 미국의 통합 파이토로직스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난 8월 13부터 17일까지 유니젠 미국의 치지아 박사과 메이홍 연구원이 유니젠 한국을 방문하여 우성식 연구소장, 김동선 박사, 에코넷한국 홀딩스 김미자 상무와 관계자를 만나 파이토로직스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 지식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위하여 유니젠 한국에서 구축한 60,000가지의 식물 리스트와 16,000가지의 식물 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새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또한, 유니젠 미국과 유니젠 한국에서 수집되는 모든 정보의 코드체계를 통합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향후 파이토로직스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협의라 할 수 있겠다. 유니젠 한국에서는 그동안 구축한 D/B 설계모델에 대하여 공유하고, 유니젠 미국에서는 외부에서 활용되고 있는 벤치마킹 대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더 효율적으로 D/B가 활용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 및 기능이 추가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실무자 수준에서의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사는 이후에도 전화회의 등을 통하여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진행계획 및 일정은 이번 11월에 열릴 sience summit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Unigen Korea and Unigen USA working closely to develop consolidated PhytoLogix information database

In the middle of August, two scientists from Unigen USA - Dr. Qi Jia and Ms. Mei Hong - visited the Unigen Korea research center to meet with Dr. SungSick Woo and Dr. DongSeon Kim at Unigen Korea for a discussion on collaborative effort in the development of a consolidated information system. After extensive discussions, they reached the following agreements: For the General Information Database (Knowledge Information Database), Unigen Korea and Unigen USA will consolidate code systems for all collected information, along with a list of 60,000 plants and 16,000 plant information databases.

Considered by far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agreement to build the PhytoLogix consolidated system, Unigen Korea provided the D/B design and Unigen USA introduced databases used at other companies that were being benchmarked. Detailed discussion also took place concerning contents and functions that needed to be added for the make D/B more effective. The two sides will continue to hold teleconferences and will decide on future action plans and dates in November’s Science Summit.

알로콥 미국 / Aloecorp USA

18 8월 말 알로콥 미국의 사무실 워싱턴 레이시에서 텍사스의 오스틴으로 이전



지난 8월 말, 알로콥 미국은 워싱턴 레이시의 사무실을 텍사스의 오스틴으로 이전했다. 이 이전은 알로콥과 힐탑가든의 일상업무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임원들과 관리직 직원들의 출장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로콥과 힐탑의 임원들이 주요 사업 기회를 검토하고 논의하는 데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됐다. 임원들과 세일즈 마케팅 직원들이 새로운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게 됐는데, 지난 2007년 8월 20, 사무실 이전과 함께 정상업무가 시작됐다.

한편 노마 가자 (오피스 매니저, 알로콥 미국)는 텍사스, 라이포드로 옮겨간다. 이를 통해 고객관리부와 라이포드 오퍼레이션간에 좀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고객들에 대해 더욱 향상된 서비스가 기대된다. 노마는 지난 8월 말 라이포드에서 일을 시작했다. 오스틴 사무실의 주소는 248 Addie Roy Rd, Suite B -103, Austin, Texas 78746 이다.

Aloecorp USA’s corporate office relocates from Lacey, WA to Austin, TX

In late August, the Aloecorp USA’s corporate office relocated from Lacey, WA to Austin, TX. The relocation was part of an effort to facilitate the day to day management of Aloecorp and Hilltop Gardens, and reduce the amount of travel required by executives and managers. Ultimately, this will allow all Aloecorp and Hilltop management to spend more time together for reviews and discussions of the many business

opportunities that need to be addressed.

The new location will provide offices for our executive, sales and marketing management personnel. The office was occupied and operational August 20, 2007.

With this change, Norma Garza (Office Manager, Aloecorp USA) will be relocated to Lyford, TX. This will provide for more effective day to day communications between our customer service and Lyford operations, ultimately improving servicing our global customers. Norma will be located in Lyford at the end of August. Austin office’s address is 248 Addie Roy Rd. Suite B -103, Austin, Texas 78746.

19 알로에 히스패닉 음료 시장 겨냥



텍사스의 델러스에서 개최된 히스패닉 소매상 360 회의에서 Everest Premium Bottled Waters의 생산자에 의해 발표된 신제품은 Everest Extra With Aloe.다. 히스패닉은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통적인 약초 사용을 물려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와 반대로, 비히스패닉 백인은 최신 트렌드와 유행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음료 형태의 제품은 알로에사의 조사를 통해 최상의 소비자 공략 방법으로 떠올랐다. 민족성과 재료에 대한 Aloecorp의 최근 조사에 근거하면, 히스패닉 소비자의 94%가 차나 음료를 통해 약초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Oneta Company에서 제작된 Everest Extra with Aloe 는 그러한 제품 중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음료에는 알로콥에서 제조한 원료 즉, 알로에 협회(IASC)에서 인증한 (Certified Plus) 유기농

알로에 베라 즙을 사용하였다.

Aloe makes its move into Hispanic-focused water



Launched at the 2007 Hispanic Retail 360 Summit in Dallas, Texas, by the producers of Everest Premium Bottled Waters, the new product is called Everest Extra With Aloe. The company recently highlighted Hispanics in particular as an ethnic group more likely to hand down the traditional use of herbals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By contrast, it identified non-Hispanic whites as being more likely to follow recent trends or fads

In addition, the beverage format surfaced as an optimal delivery method via the aloe company's investigation. Based on Aloecorp's recent research into ethnicity and ingredients, 94 percent of Hispanic consumers prefer to enjoy herbal remedies in a tea or beverage. Manufactured by the Oneta Company, Everest Extra with Aloe may have a unique take on such products. The water contains Aloecorp's bioactive ingredient - Certified Plus - made from organic whole leaf aloe vera juice.

힐탑가든 / Hilltop Garden

20 힐탑 가든 팜 소사이어티 회의 개최
지난 7월 21일 토요일, 힐탑 가든은 남부 텍사스 팜 소사이어티(PSST) 월례회의를 주관했다. 회원들은 힐탑 가든의 역사와 지리적 기원 그리고 알로에가 의 학적으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 지 궁금해 했다. 남부

텍사스 팜 소사이어티는 리오 그란데 벨리에서 시작 하여 휴스턴과 그 외 지역으로까지 회원이 확대되고 있는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룹이다.

140여명의 회원은 원예가, 묘목상, 작가, 교육자, 아마추어 야자수 애호가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팜 소사이어티는 단순한 식물 채집 뿐 아니라 자연 보존 과 자선활동에도 매우 열심이다. 지역사회 참여활동 이 식물원의 지속성에 매우 중요한 것을 고려할 때 힐 탑이 주최한 첫 번째 지역사회 행사로써 이번 회의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힐탑 가든은 앞으로도 원예, 환경, 천연 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의 중심지로 거듭 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Hilltop Gardens Hosts Palm Society



On Saturday, July 21, Hilltop Gardens hosted the monthly meeting of the Palm Society of South Texas (PSST). Society members were curious about the history of the site, the geological origins of the hill, and, of course, medicinal applications of aloe. The Palm Society of South Texas is a vibrant group with a membership extending from the Rio Grande Valley to Houston and beyond.

Among its 140 members are horticulturists, nurserymen, authors, educators and palm enthusiasts from all walks of life. More than just a forum for plant collectors, the Society is also active in conservation and charitywork. Community participation is essential to the vitality of a botanical garden, and as the first event of its kind hosted by Hilltop, this one was a great success. We at Hilltop Gardens look

forward to establishing ourselves as a venue for a wide variety of activities related to horticulture, the environment and natural healing.

알로Corp 중국 & 남양 중국 / Aloecorp China & Namyang China

21 일본 Higuchi사 Aloecorp China 방문

8월 21일 Aloecorp Chine의 일본 대리점인 Higuchi사의 Tetsuji Kawamura 전무와 Sales Executive Wei Tianshu양이 Haikou 사무실과 Wanning 농장을 방문했다. Haikou 사무실에서 해외 영업 과장이 사업 내용의 설명을 하였으며, 알로에와 우리 제품 특히 Qmatrix 제품에 관해서 열띤 토론을 가졌다.

토론 후 그들은 알로에뿐만 아니라 Aloecorp에 대해서도 잘 알기에 우리 회사 제품에 확신을 가지고 있을 을 밝혔다. 오후에 Wanning시에 있는 농장과 공장을 방문하였으며, 농장 책임자인 Lai 농장장의 안내 하에 우리는 수십만 그루의 알로에가 재배되고 있는 제 1농장을 방문했다. 그 후 공장 건축 현장 책임자인 Ren씨의 현장 소개와 함께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장을 둘러보았다.

이 공장은 11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으며, Aloecorp China측은 12월말이나 2008년 1월에 열릴 워크샵에 Higuchi사와 주요 고객들의 참가를 부탁하였다. 일본 방문진들 또한 워크샵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들의 방문은 그들과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일본 식품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양쪽의 돈독한 관계가 더욱 발전 되기를 바란다. (판매 코디네이터 Mandy)

Higuchi delegation visits Aloecorp China

On August 21, Mr. Tetsuji Kawamura, Executive Director & Miss Wei Tianshu, Sales Executive from Higuchi Co. Ltd., our new distributor on Japan paid a visit to our office at Haikou Office and the farm at Wanning Farm, on the island of Hainan in Southern China. At the Haikou office,

there was great presentation addressed by international manager and heated debates about aloe and our products, especially Qmatrix products. After the debates, the two visitors stated they had good knowledge not only about aloe but Aloecorp, and thus were more confident with our products. At noon, we moved to our farm and plant in Wanning city. Mr. Lai, the farm manager, provided our group with a guided tour of the first farm, where thousands of aloe vera was flourishing; the charming plants opened up as if to welcome the friends; Mr. Ren, the PM, provided an introduction and rough look at the plant, where construction was proceeding at a brisk pace, with work expected to be completed by the end of this November.

Aloecorp China urged Higuchi to participate in their workshop, along with all their distributors and major clients in late December or early January 2008. Higuchi expressed particular interest in this workshop! The Japanese company delegates expressed great interest in the workshop, and provided us with more information and more future possibilities! It is a sincere hope that great relationship between us will be established and consolidated, leading to the enhance growth of Japanese food market.



From Left to Right
(Mr. James, international manager of AC, Miss Mandy, sales coordinator of AC, Miss Wei Tianshu (Japanese guest) , Mr. Tetsuji Kawamura (Japanese guest), Mr. Lai, farm manager of AC, Mr. Michael, sales representative of AC)

신입사원 / New Hire



▲ 김상원 선임연구원, 연구개발실, 연구개발팀, 네이처텍 Sangwon Kim, Research Development Division, NatureTechUnigen Korea



▲ 전영주, 부장, 기획실, 유니젠 한국 Ally Jeon, General Manager, Planning & Marketing, Unigen Korea



▲ 구자익, 부장, 기획실, 유니젠 한국 Jaik Koo, General Manager, Planning & Marketing, Unigen Korea



▲ 애나 가르시아, 프론트 데스크 접수원, 에코넷미국홀딩스 Ana Garcia, Front Desk Coordinator, ECONET USA Holdings



▲ 김 폴만, 마케팅 상무보, 유니젠 미국 Kim Pohlman, Director of Marketing, Unigen USA



▲ 보니 하우스, 고객관리 사원, 유니베라 미국 Bonnie House,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Univera USA



▲ 제시카 파렌브룩, 고객관리팀 매니저, 유니베라 미국 Jessica Fahrenbruch, Manager of Customer Care, Univera USA



▲ 스티브 스티어링, 마케팅 상무, 유니베라 미국 Steve Stirling, VP of Marketing, Univera USA



▲ 예 메이, 출납원, 자금팀, 남양 중국 Ye Mei, Cashier, Accountant Dept., Namyang China



▲ 위 구오후, 품질 부장, 농장, 알로corp 중국 Wu Guofu, Quality Manager, Main Plant, Aloecorp China

▶ **Univera USA**
레이첼 위스비, 프로덕션 서비스 프로젝트 매니저, 유니베라 미국
Rachel Wisby, Production Services Project Manager, Univera USA

ECONET 미국 승진 & 부서이동 / ECONET USA Promotions & Transfers



◀ 리치 라즈가이트스, 부사장, 마케팅 & 세일즈, 유니베라 미국 ⇒ 마케팅 & 세일즈, 사장
Rich Razgaitis, Executive Vice President, Sales & Marketing Departments, Univera USA ⇒ Sales & Marketing, President



◀ 메레디스 버키, 트레이닝 상임 매니저, 유니베라 미국 ⇒ 필드 트레이닝 상무
Meredith Berkich, Senior Manager of Training, Univera USA ⇒ Managing Director of Field Training



◀ 토드 쉘스키, 회계 & 재정 상무보, 유니베라 미국 ⇒ 재정 분석 상무, 에코넷 미국 홀딩스
Todd Shumsky, Managing Director of Accounting & Finance, Univera USA ⇒ Managing Director of Financial Analysis, ECONET USA Holdings



◀ 크리스타 힐러리, 유통, 유니베라 미국 ⇒ 고객관리 사원
Krista Hileary, Distribution, Univera USA ⇒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경조사 소식 /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에코넷 한국 홀딩스 / ECONET Korea Holdings



◆ 축하합니다.
지난 10월 2일 재무팀 송형중 대리의 첫 아들 송준호군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 Congratulations
On October 2nd, little Junho, the first son of Assistant Manager Hyungjong Song (Finance Team), celebrated his first birthday.

네이처텍 / Naturetech

◆ 출산을 축하합니다.
지난 7월 31일 SCM팀 최병석 사원의 딸 최윤서양이 태어났습니다.



◆ 축하합니다.
지난 7월 21일 생산기술팀 박동규 사원의 딸 박수향양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 Congratulations
On July 21st, little Soohyang, the lovely daughter of staff member Dongkyu Park (Production Technology Team), celebrated her first birthday.

ECONET 한국 사장단 인사발령 / CEO Transfers of ECONET Korea

- ECONET에서 추진중인 2단계 전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3단계 준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인사 이동이 있어 이를 공지합니다.
- Now that the Strategy Stage 2 of ECONET is currently in progress, we'd like to notify that personnel transfers have been made as below for the Strategy Stage 3.



◀ 김영태, 사장, 네이처텍 ⇒ 고문, 네이처텍
Youngtae Kim, President, Naturetech ⇒ Advisor, Naturetech



◀ 정찬수, 부사장, 유니베라 한국 ⇒ 사장, 네이처텍
Chansoo Chung, Executive Vice President, Univera Korea ⇒ President, Naturetech



◀ 김영환, 대표이사/사장, 유니베라 한국 ⇒ 부회장, 유니베라 한국
Youngwhan Kim, President&CEO, Univera Korea ⇒ Vice Chairman, Univera Korea



◀ 김동식, 대표이사/사장, 유니젠 한국 ⇒ 대표이사/사장, 유니베라 한국
Don Kim, President&CEO, Unigen Korea ⇒ President&CEO, Univera Korea



◀ 하창원, 부사장, 에코넷 한국 홀딩스
Changwon Ha, Executive Vice President, ECONET Korea Holdings

◆ 결혼을 축하합니다.



1. 10월 7일 SCM팀 문성민 과장 / 경영기획팀 최순미 대리의 결혼식을 축하드립니다.
2. 11월 3일 오후 12시 30분 진천 그랜드웨딩홀에서 SCM팀 이해원 사원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 Congratulations (Weddings)

1. Congratulations on the upcoming wedding of Section Manager Sungmin Moon (SCM Team) and Assistant Section Manager Soonmi Choi (Management Planning Team).
2. The wedding of staff member Haewon Lee (SCM Team) will be held at 12:30 p.m. on November 3rd at the Grand Wedding Hall in Jincheon.

◆ 결혼을 축하합니다.



1. 12월 9일 13시 40분에 엑스포컨벤션웨딩홀에서 품질혁신팀 하승만 사원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2. 11월 3일 오후 13시 30분 중평 농협에서 경영기획팀 김태갑 사원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 Congratulations (Weddings)

1. The wedding of staff member Seungman Ha (Quality Innovation Team) will be held at 11:30 a.m. on December 9th at the Expo Convention Wedding Hall.
2. The wedding of Taegap Kim (Management Planning Team) will be held at 1:30 p.m. on November 3rd at Nonghyup in Jeungpyeong.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7월 17일 유니젠 천연물 연구팀 서지은씨가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Please accept our deepest condolences

The father of Researcher Jieun Seo (Natural Products Chemistry Team, Unigen Korea) passed away on July 17th. We offer our deepest condolences.

에코넷 미국 홀딩스 / ECONET USA Holdings

◆ 결혼을 축하합니다.

지난 8월 11일 네이턴 주다(연구원, 유니젠 미국)가 올림피아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는 리슬 바우어입니다.



◆ Congratulations (Weddings)

Congratulations! Nathan Judah (Research Associate, Unigen USA) got married on August 11st in Olympia, WA. The beautiful bride is Liesl Bauer.

Congratulations

생일자 소식 10~ 11

Birthday in October & November

Happy Birthday

에코넷 한국 홀딩스
ECONET Korea Holdings



◆ 10/4 문길성
Gilsung Moon

네이처텍
Naturetech



◆ 10/2 심문흠
Moonhum Shim



◆ 10/2 최순미
Soonmi Choi



◆ 10/7 박원우
Wonwoo Park



◆ 10/8 강석영
Sukyoung Kang



◆ 10/8 안기억
Kieuk Ann



◆ 10/9 손정숙
Jeoungsook Soun



◆ 10/11 정형철
Hyoungchul Jeoung



◆ 10/13 이연석
Yunsuk Lee



◆ 10/13 예정수
Joungsoo Ye



◆ 10/15 이찬규
Chanku Lee



◆ 10/17 김연진
Younjin Kim



◆ 10/21 박상섭
Sangsup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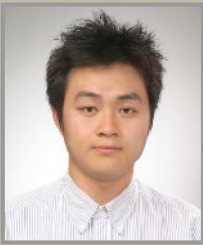
◆ 10/22 최정숙
Sungsook Choi



◆ 10/22 김홍만
Hongman Kim



◆ 10/23 황근천
Keunchon Hwang



◆ 10/26 조관현
Kwanyhyun Cho



◆ 10/28 표한중
Hanhong Pyo



◆ 10/29 이미숙
Misook Lee



◆ 10/30 박성수
Sungsoo Park



◆ 10/30 김경숙
Kungsook Kim



◆ 10/31 김재승
Jaeseung Kim

Happy Birthday



◆ 10/31 김영미
Youngmi Kim



◆ 11/1 이화순
Huasoon Lee



◆ 11/1 서동욱
Donggock Seo



◆ 11/2 석미선
Misun Seuk



◆ 11/4 지영철
Youngchul Ji



◆ 11/8 우길종
Kiljong Woo



◆ 11/14 전익표
Ikpyo Jeon



◆ 11/15 심진우
Jinwoo Shom



◆ 11/16 김경식
Kyoungsik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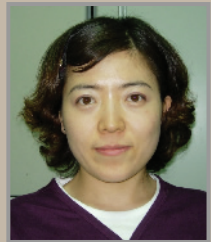
◆ 11/16 장혜인
Hyein Jang



◆ 11/20 정의선
Uisun Jung



◆ 11/20 최은미
Eunhi Choi



◆ 11/8 채진희
Hinhee Chae



◆ 11/10 이경준
Kyungjun Lee



◆ 11/13 김영태
Youngtae Kim



◆ 11/18 유은석
Yunsuk Yoo



◆ 11/24 이시찬
Sichan Lee



◆ 11/28 장금순
Kumsun Jang



◆ 11/22 최영재
Youngjae Choi



◆ 11/22 김혜연,
Hyeon Kim



◆ 11/24 추명주
Myungjoo Chu



◆ 11/25 김성무
Sungmu Kim



◆ 11/26 손호륜,
Horyoon Son



◆ 11/28 박소윤
Soyeon Park



◆ 10/3 이규남
Gyunam Lee



◆ 10/7 김유수,
Yoosoo Kim



◆ 10/8 김영대
Youngdae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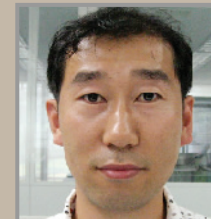
◆ 10/15 정중희
Jonghee Jung



◆ 10/22 신영익
Youngok S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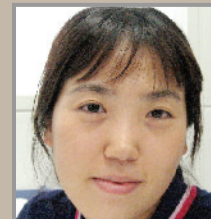
◆ 11/29 김종찬,
Jungchan Kim



◆ 10/10 김충섭
Chungseop Kim



◆ 10/12 이영철
Youngchul Lee



◆ 10/28 황보현정
Hyunjung Hwangbo



◆ 11/5 황지혜
Jihye Hwang



◆ 10/25 신은주
Eunju Shin



◆ 10/27 유성곤
Seongkon Yoo



◆ 10/31 신인수
Insoo Shin



◆ 11/8 이민영
Minyoung Lee



◆ 11/10 이지희
Jihee Lee



◆ 11/14 이성열
Sungyeol Lee



◆ 10/2 수잔 헤이거
Susan Haeger



◆ 10/4 윤경수
K.S. Yoon



◆ 11/1 타라 아담스
Tara Adams



◆ 11/23 안젤리타 레이방
Angelita Rabang



◆ 11/25 이세현
Sean Lee

Happy Birthday

알로콧 미국 (텍사스)
Aloecorp USA (Texas)

➡

11/24 밥 스미스
Bob Smith

알로콧 미국 (멕시코)
Aloecorp USA (Mexico)

➡

10/8 다비드 실바
David Silva

10/12 호세 오르티스
Jose Ortiz

10/30
알델라이도 에르난데스
Adelaido Hernandez

11/1 리치 라즈가이트스
Rich Razgaitis

11/6 캐리 젤리
Carrie Jelle

11/9 샘 라이트
Sam Wright

11/16 보니 하우스
Bonnie House

11/17 완다 잭슨
Wanda Jackson

11/18 지넷 홀트
Jeannette Holt

11/1 호세 마르티네스
Jose Martinez

11/4 후안 살라사르
Juan Salazar

11/11 마르셀리노 디아즈
Marcelino Diaz

11/13 에두아르도 산체스
Eduardo Sanchez

11/17 카를로스 로드리게즈
Carlos Rodriguez

11/20 헤수스 알마구에르
Jesus almaguer

11/18 제니 헌츠맨
Jenny Huntsman

11/23 제니퍼 베인터
Jennifer Bainter

11/23 마커스 호드넷
Marcus Hodnett

11/30 라타냐 스티븐스
Latanya Stephens

유니젠 미국
Unigen USA

➡

10/20 타오 트린
Thao Trinh

11/21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
Maria Teresa Rivera

11/22 세실리오 몬탈보
Cecilio Montalvo

11/23 클레멘테 바우티스타
Clemente Bautista

11/29 사투르니노 무니스
Saturnino Muniz

유니베라 미국
Univera USA

➡

10/2 에리카 클레멘스
Erica Clemmens

10/21 리네 버틀러
Linnea Butler

10/27 아베이싱히 파드마프리아
Abeysinghe Padmapriya

11/1 바비 하나
Bobby Hannah

11/1 메이 홍
Mei Hong

11/12 치 지아
Qi Jia

11/21 덕 린치
Doug Lynch

10/3 소니타 넬슨
Sonita Nelson

10/6 알리시아 리베라
Alicia Rivera

10/9 테리 베이커
Teri Baker

10/13 도나 산달
Donna Sandahl

10/13 파트리샤 피터슨
Patricia Peterson

10/18 사라 월
Sarah Wall

알로콧 중국 & 남양 중국
Aloecorp China & Namyang China

➡

10/5 켈리
Kelly

10/11 리 빈
Li Bin

10/28 라이 하이젠
Lai Haigeng

11/1 렌 지아케
Ren Jiake

기타 - 사진 제출 안하신 분들의 생일자 명단입니다.
Misc. - The list of those who had a birthday but did not submit their pictures

▶ Univera Korea
• 10/2 박영수 Youngsoo Park
• 11/17 오성균 Sungkun Oh

▶ Aloecorp USA (Texas)
• 11/26 로살린다 로살레스 Rosalinda Rosalez

▶ Hilltop Garden
• 10/3 사바스 갈베즈 Sabas Galvez
• 10/29 헥터 다미안 Hector Damian

▶ Aioecorp China & Namyang China
• 9/12 wen 메이건 Wen Meiguang

여름휴가때 찍은 사진 콘테스트 당첨자 소개

이번 사진콘테스트는 에코네시안들의 투표참여가 어려웠습니다. 하여 에코넷웨이 기자들과 편집실에서 선정하게 되었으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위 카보에서의 느긋한 휴식

나는 내 딸아이가 카보 산 루카스에서 여름방학동안 찍은 이 사진을 무척 좋아한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딸아이의 귀여운 발가락이다.

응모하신 분 :
캐런 휴턴, 유니베라 스토어 직원, 유니베라 미국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First Prize Kickin’ it in Cabo

I love this picture. My daughter took it while she was in Cabo San Lucas for her summer break. Those are her cute little toes.

Submitted by : Karen Hutton, Univera Store Clerk, Univera USA
(A gift certificate worth \$150 will be awarded.)

Winners of the “Summer Vacation” Photo Contest

It was not easy for ECONETians to participate in the vote for the winners of October photo contest. Therefore, the winners were selected by reporters of ECONET Way and staff members of the Editing Department. We hope you take part in the vote next time.



공동 2위 모래찜질을 견디지 마세요!

이번 여름휴가때 모래찜질을 어렵게 겨우 만들었는데 누군가 모래를 흐트릴까봐 깜짝 놀랐다

응모하신 분 : 박병진 사원, 생산기술팀, 네이처텍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Joint Second Prize

Don’t Touch the Sand Bath

Since it took very long to build the sand bath, I was so surprised if someone would ruin it.

Submitted by :
Byungjin Park, Production Technology, NatureTech
(A gift certificate worth \$100 will be awarded.)



공동 2위 마이애미 해변에서도 푸른 알로콧

이 사진은 6월 19일 플로리다에서의 휴가동안 찍은 것이다. 에코 넷과 알로콧을 생각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나는 모래에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무척 신나고 흥미진진한 여행이었다.

응모하신 분 : 유리 보로베츠, 회계 과장, 알로콧 미국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Joint Second Prize

Aloecorp is GREEN Even on Miami Beache

These pictures were taken June 19th on my vacation to Florid. I could not shake Econet and Aloecorp from my mind and drew the names in the sand. The trip was a blast with lots of fun and excitement

Submitted by :
Yuri Vorobets, Accounting Manager, Aloecorp USA
(A gift certificate worth \$100 will be awarded.)



3위 아슬아슬한 순간

하이난, 산야의 바닷가에서 갑작스런 파도에 당황하는 이들. 그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실패하던 그 순간. 사진을 보면 이해할 것이다.

응모하신 분 : 줄리아, HR 과장, 알로콧 중국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Third Prize ‘Narrow Escape’

In Sanya, Hainan Island, Suddenly, great wave attached them! At that time, helpless and panic swept across them. They struggled to keep themselves standing firmly but failed. Just take a look at them! And you know everything !

Submitted by : Julia, HR manager, Aloecorp China
(A gift certificate worth \$50 will be awarded.)



아차상1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

와이오밍에 있는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에서 찍은 사진이다. 사진은 워싱턴의 올림피아에서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까지의 차량 여행중 찍은 사진으로 나는 알로콧 미국의 이전에 따라 오스틴으로 가고 있는 밥 앱스와 함께 여행을 하는 중이었다.

응모하신 분 : 하이디 한슨, 임원 보조, 에코넷 미국 홀딩스
(베라케어 치약 1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1 Grand Teton National Park

This is from Grand Teton National Park in Wyoming. The picture was taken on the road trip from Olympia, Washington to Austin, Texas. I was with Barb Apps (Director of Marketing , Aloecorp USA) who was moving to Texas as part of Aloecorp USA’s relocation.

Submitted by : Heidi Hansen, Executive Assistant, ECONET USA Holdings (A gift set of vera care products will be awarded.)



아차상2 와일드 웨이브에서의 타이슨과 프리슬리

내 아들 타이슨과 그 친구 프리슬리가 와일드 웨이브/ 인첸티드 빌리지에서 찍은 사진이다. 두 아이 모두에게 첫 놀이동산 방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아이는 신이 나서 오늘이 자신들 최고의 하루였다고 말했다.

응모하신 분 : 제니퍼 미첼, 고객 관리 사원, 유니베라 미국
(베라케어 치약 1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2

Tyson and Presley at Wild Waves

This is my son, Tyson, and his friend, Presley, at Wild Waves/Enchanted Village. It was the first trip to the park for both of them. On our way to the park in the car they were so excited and on the way home they kept saying it was the best day of their life.

Submitted by : Jennifer Mitchell, Customer Care Representative , Univera USA (A gift set of vera care products will be awarded.)



아차상3 아빠 힘내세요!

장대비 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붓짐 짊어 지고,,
“아빠 힘내세요~ 제가 밥 조금만 먹을께요..”

응모하신 분 : 김진영 과장, 품질혁신팀, 네이처텍
(베라케어 치약 1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3 Cheer up, Daddy!

Carrying a baby in heavy rain, “Sorry, Daddy. I promise I will loose weight.”

Submitted by : Jinyoung Kim, Section Manager, Quality I’nnovation Team, NatureTech (A gift set of vera care products will be awarded.)



아차상4 마이애미의 우드랜드 동물원 첫 방문

내 딸 마이애미가 8월 9일 우드랜드 동물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사진이다. 딸 아이는 양들을 비롯한, 동물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Petting Zoo에 갔을 때 너무 좋아서얼굴에서 계속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안젤리타 레이방 , 컴플라이언스 스페셜리스트, 법무부서, 에코넷 미국 홀딩스
(베라케어 치약 1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4 Myami’s First Visit to the Woodland Park Zoo

My daughter, Myami’s first visit to the Woodland Park Zoo 8/9/2007. She was so excited to see the goats and all the animals in the petting zoo. She was beside herself and couldn’t stop smiling and laughing.

Submitted by : Angelita Rabang, Compliance Specialist, Legal, ECONET USA Holdings (A gift set of vera care products will be awarded.)

10월호 퀴즈 & 08월호 당첨자 발표

지난 호 퀴즈정답 (네이처텍, 네이처텍)

- ▶ 지난호 퀴즈 당첨자 (상품으로 리니시에 밸런싱 스킨케어를 드립니다.)
 - 박홍엽, 경영지원팀, 유니베라 한국
 - 김혜연, 교육팀, 유니베라 한국
 - 권수남, CTO실, 에코넷 한국 홀딩스
 - 박병진, 품질혁신팀, 네이처텍
 - 신부희, 생산기술팀, 네이처텍
 - 최유순, 생산기술팀, 네이처텍
 - 어운정, 총무인사팀, 유니젠 한국
 - 안젤라 베이런, 고객관리 사원, 유니베라 미국
 - 게리, 관리부, 알로콥 중국
 - 맨디 리, 영업 코디네이터, 영업부, 알로콥 중국
- ▶ 10월호 사진공모 이벤트 당첨자 소개는 78page에 있습니다.
- ▶ 2007년 12월호에는 사랑하는 애완동물 또는 식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등: 150,000원 상품권(1명)
 - 2등: 100,000원 상품권(1명)
 - 3등: 50,000원 상품권(1명)

10월호 ECONET Way 퀴즈!

유니베라 신제품 브랜드인 리니시에의 스페셜 케어라인으로 출시된 안티에이징 제품인 에이지 디파잉 라인의 세가지 종류는 무엇일까요?

- ▶ 응모하실곳 : kaoh@univera.com 또는 84Page 각사 기자들 이메일
- 응모하신분들중 5분을 추첨하여 에이지 디파잉 라인중 한가지를 드립니다.

October Quiz and Winners of the August Quiz

Answers to the August quiz (NatureTech, NatureTech's)

- ▶ Winners of the August Quiz (Winners will receive L'initié Balancing Skin Care.)
 - Hongyeop Park, General Management Dept., Univera Korea
 - Soonam Kwon, Division of CTO, ECONET Korea Holdings
 - Boohee Shin, Production Technology Team, NatureTech
 - Younjeong Eo, HR&General Affairs Team, Unigen Korea
 - Gary, Management Dept, Aloecorp China
 - H.Y. Kim, Education Team, Univera Korea
 - Byungjin Park, Quality Innovation Team, NatureTech
 - Y.S. Choi, Production Technology Team, NatureTech
 - Angela Bayron, Customer Care Representative, Univera USA
 - Mandy Li, Sales Coordinator, Sales Department, Aloecorp China
- ▶ Winners of the photo contest for our August issue are announced on page 78.
- ▶ Send us a picture of you and your pet or plant for the December 2007 edition.
 - First prize: gift certificate worth \$150 (1 person)
 - Second Prize: gift certificate worth \$100 (1 person)
 - Third prize: gift certificate worth \$50 (1 person)

October ECONET WAY Quiz

What are the three products of the Age Defying Line which are new cosmetics brand of Univera's L'initié Speical Care Line?

- ▶ Please send answers to kaoh@univera.com or e-mail addresses of reporters listed on page 84.
 - Five chosen applicants will receive one of the Age Defying Line.

ECONET Way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더욱 사랑 받는 '에코넷웨이' 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아래 항목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kaoh@univera.com** 또는 각사 기자들 이메일

1. 이번 호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내용 혹은 고쳤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2. 에코넷웨이를 통해 소개하고 싶은 소재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3. 에코넷웨이의 잘못 표기된 부분을 지적해주세요.

*We strongly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by all
members of the
ECONET family.*



Join Us in Making ECONET Way

To ensure the continued improvement of ECONET Way, we solicit the valued opinions of our readers.
⇨ email addresses of reporters from each company

1. Which part of this issue did you find the most satisfactory, or the most in need of amendment?
2. If you have any stories or topics you would like to share through ECONET Way, submit them freely to our editorial staff.
3. Let us know if there were any typographical errors in ECONET Way.

에코넷웨이에 바란다 / Story Suggestions for ECONET Way

에코네시안 여러분!

작은소식이라도 각 사의 기자분들께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기사화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Suggestions for ECONET Way!”

Please e-mail the latest news to your company’s reporter listed below. No matter how trivial the item, your updates will be very helpful in assembling the next issue. We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에코넷 한국 홀딩스 / ECONET Korea Holdings

오경아 대리, 비서팀, kaoh@univera.com
Kyoungah Oh, Assistant Manager, Secretary Team

네이처텍 / Naturetech

최순미 대리, 경영기획팀, smchoi@namyangglobal.com
Sunmi Choi, Assistant Manager, Managemnet Planning Team

전영숙, 생산기술팀, et2388@namyangglobal.com
Yongsuk Jun, Production Technology Team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박정아 팀장, 고객지원팀, aloever@univera.com
Jeong Ah Park, Team Manager, Customer Service Team

김경미 대리, 전략기획팀, kkmimi99@univera.com
Kyungmi Kim, Assistant Manager, Strategy & Planning Team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최재영 차장, 해외영업팀, jychoi@unigen.net
JaeYoung Choi, Manager, Overseas Sales Team

장미라, 총무인사팀, happycode@unigen.net
Mira Jang, HR & General Affairs Team

에코넷 미국 홀딩스 / ECONET USA Holdings

이세현, SeanL@econetwest.com
Sean Lee, Executive Administrative Manager

밥 풀턴, 지역사회 봉사 코디네이터
Barb Fulton, Community Outreach Coordinator

타라 아담스, 인사부 보조
Tara Adams, HR Assistant

알로콥 미국 / Aloecorp USA

김수겸 상무, 알로콥 생산관리, joseph@aloecorp.com
Joseph Kim, COO of Aloecorp Operations

알로콥 중국, 남양 중국 / Aloecorp China, Namyang China

줄리아, wj20061204@hotmail.com
Julia, HR Manager, Management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허영문 대리, ympost@hanmail.net
Youngmoon Heo, Assistant Manager



네이처텍 / Naturetech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2 ☎ : 365-850
370-92 Yongjeong-Ri, Chopyeong-Myon,
Chinchon-Kun, Chungbuk, 365-850, Korea
Tel : (043)532-5144, Fax : (043)532-5328
www.namyangglobal.com

에코넷 한국 홀딩스 / ECONET Korea Holdings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 :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 ga,
Sungdong- gu, Seoul, Korea
Tel : (02)460-8865, Fax :(02)467-9988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 :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 ga,
Sungdong- gu, Seoul, Korea
Tel : (02)460-8865, Fax :(02)467-9988
www.univera.com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200-1번지 ☎ : 330-863
#200-1, Songjung-Ri, Byeongcheon-Myeon,
Cheonan-Si, Chungnam 330-863, Korea
Tel : (041)529-1510, Fax : (041)529-1599
www.unigen.net

에코넷 미국 홀딩스 / ECONET USA Holding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300, Fax : (360)413-9185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500, Fax : (360)413-9150
www.universalifesciences.com

유니젠 미국 / Unigen USA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200, Fax : (360)413-9135
www.unigenpharma.com

알로콥 미국(생산) / Aloecorp USA (Production)

61/2 Miles North of La Villa On FM 491
Lyford, Texas 78569 U.S.A
Tel : (956) 262-2176 Fax : 956-262-8113
www.aloecorp.com

알로콥 미국(영업) / Aloecorp USA (Sale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400, Fax : (360)413-5036
www.aloecorp.com

알로콥 중국, 남양 중국 / Aloecorp China, Namyang China

Room #1108, Haikou International Commercial Centre, No.38,
Datong Road, Haikou, Hainan, China - Zip Code : 570102
Tel : (898)-6674-5400, Fax : (898)6674-3400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103-A 4th Floor, Okeansky Prosect,
Vladivostok, Russia,690002
Tel: 7-4232-42-20-95, Fax : 7-4232-42-13-36



피부의 시간을 되돌리는 신비의 공간 리니시에 에이지 디파잉

리니시에 에이지 디파잉은 천연 약용 식물의
신비한 힘과 세가지 노화 해결([3S]²) 시스템을 통해
잃어버린 피부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안티에이징 라인입니다.

Skin Healing Program - L'initié